

# Style 조선일보

NOVEMBER  
2020 vol.213



##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007<sup>™</sup>** EDITION

SEAMASTER DIVER 300M  
MASTER CHRONOMETER

## JAMES BOND'S CHOICE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파이와 함께 선보이는 오메가의 새로운 007 제임스 본드 에디션. 강하지만 가벼운 그레이드 2 티타늄 소재로 제작되어 당신의 손목에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선사합니다.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아 뛰어난 정확성과 항자성을 보장하는 007 제임스 본드 에디션은 당신의 미션을 위한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줄 것입니다.

**Ω**  
**OMEGA**

청담부티크 02.511.5797  
omegawatches.com

007<sup>™</sup> and James Bond materials © 1962-2020 Danjaq and MGM. 007<sup>™</sup> and related James Bond Trademarks, TM Danjaq. All rights reserved.





12



14

22



식물을 통해 느껴지는 계절 변화에서 영감을 얻은 반클리프 아펠은 눈으로 뚜렷한 아름다운 겨울을 기념한다. 겨울에 피어난 화려한 꽃들을 클립 혹은 팬던트로 착용 가능한 자개와 교철의 로즈 드 노엘과 신들바람에 춤추는 꽃잎을 형상화한 프리 볼 컬렉션으로 표현했다. 문의 1668-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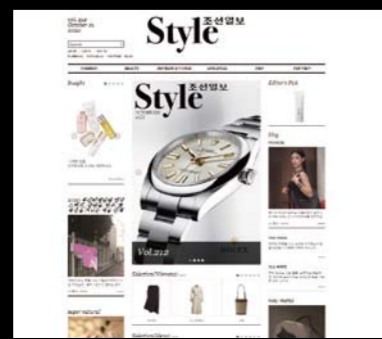
10

- 12 **CHARLOTTE PERRIAND AS A DESIGNER** 샤를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은 작고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요즘 디자인 생태계에서 아주 빈번히 회자되는 이름이다. 그녀의 출생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올 초 막을 내린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서의 대규모 회고전을 계기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다.
- 14 **YOU WILL NEVER WALK ALONE** 이경미의 이블리에는 불거리로 가득 찬 근사한 소품 같다. 율가를 전사장으로 탈바꿈한 자신의 작업실에서 미술 애호가들을 맞이할 채비를 마친 그를 만났다.
- 15 **TINY LADY** 드레스 워치보다 작고 브레이슬릿보다 눈부신, 색다른 매력의 스몰 페이스 워치 6.
- 16 **TIME TO INNOVATE**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 지난 3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스위치 그룹의 '타임투무브(Time to Move)' 행사 역시 올해는 만나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유수의 시계 명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타임피스들을 공개하며 많은 시계 애호가의 아쉬움을 해소해주었다.
- 18 **THE PIONEER SPIRIT LIVES ON** 론진과 역사를 함께한 최초의 비행사와 탐험가를 기념하는 론진 스피릿 컬렉션. 과거 영웅들과 절대로 쇠퇴하지 않는 그들의 도전, 정신력을 기념하는 컬렉션이다.
- 22 **SOMEWHERE IN BETWEEN**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호텔에서 모던 클래식 룩과 함께 보낸 어느 늦가을 하루.
- 30 **SINCERELY YOURS** 당신의 진심을 담은 문구를 완성해줄 만년필 5.
- 31 **BE CLASSY** 품질 높은 소재와 섬세한 제조 과정을 거쳐 완성한 랄프 로렌 퍼플 라벨에서는 특유의 여유와 위트를 함께 느낄 수 있다.
- 32 **COVER ME UP** 실루엣은 간결하나 소재는 강렬하다. 활동성과 실용성도 잊지 않았다. 남성 아우터 트렌드의 면면.
- 33 **편안함에 진심을 담다** 페트레이는 알프스 몽블랑의 가장 매력적인 능선 중 하나에서 따온 이름. 율가를 완벽한 라인과 디테일에 집중한, 실용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아우터를 만나보자.
- 34 **WARM ME UP** 여성스럽지만 잘게나 디테일을 첨가해 긴장감을 더하는 방식으로 제안하는 여성 아우터 트렌드 4.
- 35 **EVERYDAY ELEGANCE** 우아함과 유니크함이 공존하는 스타일을 추구한다면, 한심과 현대백화점이 함께 만든 프리미엄 편집숍 '폼 스튜디오(Four Studio)'의 셀렉션에 주목할 것.
- 36 **양평 □ 자 집과 땅집** 양평의 농로를 따라 들어가다 몇 번 길을 꺾으면 건축가 조병수의 실용주의자 세컨드 하우스인 □ 자 집이 나온다. 그 아래쪽으로는 또 하나의 거처인 땅집이 있다. 작고 겸손한 집이지만 건축이 품고 있는 뜻과 의지는 어느 집보다도 크고 반복적이다.
- 38 **EDITOR'S PICK** 속부터 채우고 탄탄하게 마무리하는 11월의 뷰티 비책

# Style 조선일보 Issue.213 November 2020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철 | 이창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동성현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역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문의 02 3480 0104



온라인 부피크, DIOR.COM

# DIOR





# CAT WALK

# THE BOX

여성들의 워시 리스트에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보테가 베네테의 새로운 백 캄플렉스 박스. 기존 클래식 백이 지닌 부드럽고 독특한 하드웨어의 특징을 이어가면서도 유연한 형태로 동시대적인 미감을 드러낸다. 폰텐테, 아몬드, 레이스 그린, 그레이프, 블랙, 칠리, 6가지 감각적인 색상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11월 8일 리뉴얼 오픈하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다. 3백98만원. 문의 02-3438-7682 에디터 **이주이**



시련을 우아한 발걸음으로 완성하는 레이디 라이크 록 (워류터) 페이퍼트 송이 가죽으로 완성한 화이트 인사이더 슬랩백 펄프스. 상징적인 클래식 잠금장치를 모티브로 한 메탈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1백46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레퍼팅 스트랩과 남작한 매듭 보 디자인으로 하우스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은 자디울 슬랩백 펄프스. 로 컷 디자인에 블랙과 베이지 체크 자수 코튼 소재를 덧입혀 따뜻하고 감성적인 아름다움이 묻어난다. 1백39만원 **디올**. 문의 02-3480-0104. 부드러운 실크 소재와 메탈 소재 질이 조화로운 라스 리본 율. 폭스환 쿠션 형태 리본으로 특별한 매력을 한껏 실었다. 가격 미정 **마우미우**. 문의 02-3218-5331 포토그래퍼 **최승혁** 에디터 **이주이**

#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THE SPIRIT OF AVIATION

역사에 기록된 유명 개척자들의 손목에서 험난하고도 뜻깊은 탐험을 함께한 론진의 타임피스는 곧 브랜드의 고유한 정신을 의미한다. 론진의 스피릿 컬렉션도 마찬가지. 비행 역사상 영광의 사태를 재현하는 동시에 현대의 미학 코드와 진보한 기술력을 담았다. 새틴 폴리싱 처리한 지름 42mm의 스틸 케이스에 COSC 인증을 받은 오토매틱 칼리버 L688.4를 장착해 정교한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제공하며, 다이얼 위 12시간 카운터, 30분 카운터, 60초 카운터가 균형 잡힌 모습으로 자리한다. 이들 속에서도 한하게 빛나도록 슈퍼 루미노바 처리한 아라비아숫자 인덱스와 핸즈, 기동성이 뛰어난 카탈라 날짜랑, 과장된 크기의 크라운 등 파일럿 워치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매력적인 피스다. 4백10만원. 문의 02-310-1597 에디터 **이해비**

# EXHIBITION



한국적인 미학의 장수라고 일컬어지는 우연의 미감을 품은 분청사기 캄플렉스관 현대미술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지고 있다. 얼마 전 가나아트센터에서 선보였다가 최근 인사아트센터로 무대를 옮긴 <한국 미학의 장수-고급 분청사기>展. 2018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36억원에 낙찰돼 화제를 모은 분청사기 조화 기하문 관형(개인 소장품)을 선보여 눈길을 끄는 이번 특별전은 가나문화재단 소장품인 조선시대 분청사기 50여 점과 오수환, 고영훈 등 한국 현대미술가의 회화가 한 공간에서 자아내는 묘한 조화를 접할 흔치 않은 기회다. 조선 초기인 15~16세기 짙게 유황한 백토 분청이 특징인 화형 및 도자기류. 뜻하는 분청사기는 청자와 백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기도 했지만, 장형 없는 자유로움에서 비롯된 대담한 무늬, 소박하나 멋스러운 형태, 대체로운 기법 등으로 갈수록 특유의 미학과 가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가나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전시는 원래 독일 마인선 도자박물관과 러시아 모스크바의 동양박물관 등에서 순회전으로 차례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전시로 대체됐다. 대행이 옮기는 서울에서는 관람객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다. 오는 11월 22일까지. 가나문화재단의 고급 분청사기 명품은 향후 제주 자치위 문화예술인들에게도 관람객을 제주 가나아트미술관에서 상설 전시할 예정이다. 문의 02-720-1010



# MODERN ELEGANCE

손목에서 누리는 금빛 찬란한 호사, 로즈 골드 링. (워류터) **까르띠에 클라쉬드 까르띠에 링**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자유를 표현한 제품. 훌륭하게 세팅한 스티드가 강한 개성을 드러낸다. 2백90만원. 문의 1566-7277 **부세몬 피토르 블루 스몰 링** 핑크 골드와 옐로 골드,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세 가지 라인에 경쾌한 데님 블루로 포인트를 준 주얼리. 모던하고 젊은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8백만원. 문의 02-772-3508 **블라키 세르펜티 바이퍼 링**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로즈 골드에 카탈리안을 교차 장식해 벨의 관음미와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6백만원. 문의 02-2056-0170 **타미나 타미나 T1 내로우 하프 다이아몬드 링** 브랜드의 시그니처 T를 모티브로 활용한 주얼리. 부분적으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특별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이주이**



Slim d'Hermès GMT  
Time beyond time.





# for him Selection

실용적이고 멋스럽게 즐기는 원 마일 라이프.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블랙 다이얼과 실버 핸즈, 브라운 가죽 스트랩이 어우러진 스테인리스 스틸 문워치 크로노그래프 39.7mm 9백만원 오메가.

상징적인 라인의 브라운 가죽을 둘러 끈과 장갑을 살린 라프 로렌트 INVS 드로트백, 28x38cm, 1백만원에 생로망 by 안토니 바카렐로.

시그니처 캔버스 & 배트카라데타 에어퍼프 코튼 캐시미어 59만원 벨루티.

투톤 컬러 시미오는 가죽 카드는 지갑 33만원 프라다.

시그니처 캔버스 & 배트카라데타 에어퍼프 코튼 캐시미어 59만원 벨루티.

감각적인 울리브 컬러를 입힌 안경 40만원에 울리버 피플스 by 록스타카.

캐시미어 코트 편조 398321원 브루넬로 쿠치넬리.

테라코타 캔버스와 스웨이드 양모 가죽을 조형한 선샤인은 배낭 신커즈 1백만원 에르메스.

상징적인 간헐적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스카프 89만원 실버토레 페라기모.

밝은 기운을 감화한 캐시미어 후디 898321원 에르메스.

브라운 캐시미어 100% 89만원 벨루티.

스프링 캐시미어 22x18cm, 998321원 에르메스.

편지 02-514-0652 톨 브라운 02-6905-3505 프라다 02-3218-5320 벨루티 02-547-1895 록스타카 02-501-4436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실버토레 페라기모 02-3430-7854 에르메스 02-542-6622 생 로망 by 안토니 바카렐로 02-6905-3924 브리오니 02-516-9686 에르메스 02-518-0285 로로피아나 02-546-0615 오메가 02-511-5797



# BRUNELLO CUCINELLI

From here on, I would like to resume the journey towards Universal Humanism

브루넬로 쿠치넬리 청담 전문점 /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대구신세계점, 센텀시티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판교점, 대구점, 부산점 갤러리아백화점 EAST /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 부산본점 / AK플라자 분당점





원스톱 트러닝한 테크니컬 울 스크 에디션 사이즈 4#35인원 **바버리**.

러버 솔이 돋보이는 캐주얼 스니커즈 **99만원 프라다**.

캐주얼 자수 기법이 돋보이는 벨벳 레어디 디오리트. 마디안 백, 24x19cm, 6#40인원대 **디오르**.

이탈리안 부클을 울 소재로 완성한 플로슈 28만원 **엘렌카인스키**.

아르비탈레 워킹 아카데미 어빙 에디터 **디오르**.

가볍고 따뜻한 캐시미어 장갑 28만원 **막스마라**.

부드러운 85%가죽으로 완성한 미니 백, 13x17.5cm, 2백70만원대 **로로피아나**.

실용적인 원통 형태의 캐시미어 미니 백, 13x17.5cm, 2백70만원대 **로로피아나**.

포브 바레나 아송이까지죽으로 선보이는 에르메스 아틀라주 더블 투어 엑스트라 슬림 40mm 스트랩 1백73만원 **에르메스**.

플러스 울 소재 헤어밴드 70만원대 **렌디**.

# for her Selection

여유로운 핏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즐기는 원 마일 웨어.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옐로 골드 보드에 멜레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수놓은 반금 4백30만원 **아디르**.

코티드 캔버스 소재 에어팟 케이스 17만원 **MCM**.

인트레치아도 워킹 기법으로 완성한 BV 플드 백, 26x33cm, 5백59만원 **보테가 벤테나**.

바진 울, 실크, 캐시미어 소재를 이상적으로 조절한 케이프 1백52만원 **파비아나 필리피**.

**바버리** 080-700-8800 **프라다** 02-3218-5320 **엘렌카인스키** 02-3433-6583  
**디오르** 02-3480-0104 **막스마라** 02-511-3935 **토즈** 02-3438-6008 **로로피아나** 02-546-0615  
**렌디** 02-514-0652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보테가 벤테나** 02-3438-7682 **MCM** 02-540-1404  
**파비아나 필리피** 02-6960-0831 **에르메스** 02-542-6622 **아디르** 02-3479-6120

코트와 매치하면 보다 스타일리시한 원 마일 룩을 완성할 수 있는 캐시미어 팬츠 9백27만원 **브루넬로 쿠치넬리**.



# Addir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3F | 대구신세계 5F | 분더샵청담





The Women Who Inspire Us\_11 Part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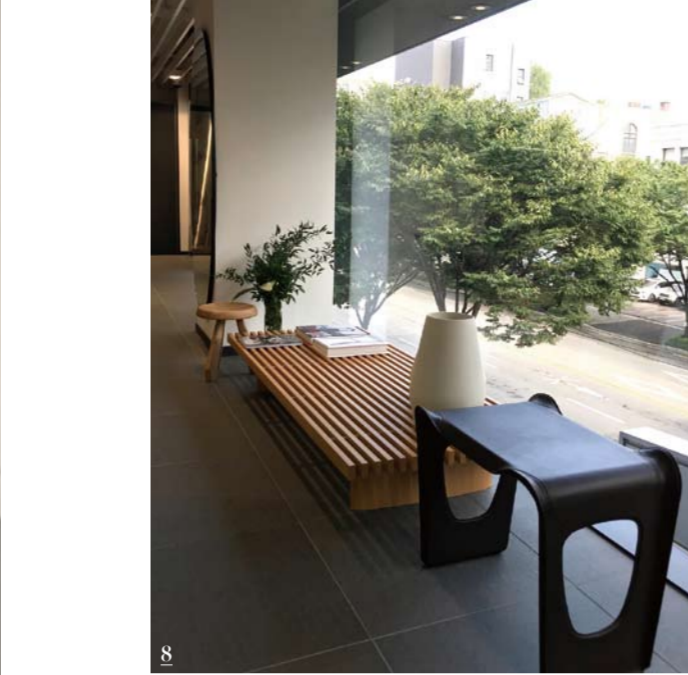
# Charlotte Perriand as a Designer

샤를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은 작고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요즘 디자인 생태계에서 아주 빈번히 회자되는 이름이다. 한 세기를 거의 꼭 채워(1903~1999) 살다 간 그녀는 20세기 모더니즘의 기수로 평생에 걸쳐 당찬 활약을 펼쳤지만 주로 누군가의 조력자로서만 언급되다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집중적인 재조명의 대상이 된 인물. 특히 그녀의 출생지인 프랑스 파리에 지난 2월 막을 내린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서의 대규모 회고전을 계기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올 들어 이솝(Aesop), LG전자 같은 브랜드 차원에서 페리앙을 창조적 영감을 주는 대가로 내세운 전시를 꾸렸으며, 현재 서울 창당동의 복합 매장 10 코르소 꼬모 서울에서 가구 디자인과 사진 아카이브를 다룬 개인전도 진행 중이다. 그녀의 진취적인 커리어 여정을 두 차례에 걸쳐(디자인, 건축) 살펴본다.

낭만적인 영화의 시대적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벨 에포크' 시기에 '빛의 도시' 파리에 태어났다면 일단은 운이 좋다고 해야 할까? 1,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는 운명인만큼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었지만, 어떤 방면이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무척이나 흥미진진한 시기였음이 분명하다. 온갖 발명품이 붓물 터지듯 등장하고 문화 예술 분야의 흐름도 워낙 변화무쌍하게 움직였으니 그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있었다면 적어도 지루할 틈은 없었을 것 같다. 1903년 파리의 평범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샤를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은 이 모든 세상의 변화를 신기하게 지켜보면서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열정으로 눈을 빛내는 소녀였다. 손재주가 좋은 집안에서 자란 영향을 받아 그녀는 자연스럽게 공예에 남다른 관심과 재능을 보였고, 가구 디자인 공부를 한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주류로 부상하던 모더니즘과는 거리가 먼 장식적인 커리큘럼에 실망했고, 산업화와 소비주의의 발흥으로 거리를 수놓기 시작한 자전거와 자동차 등 기계 미학에 매혹된다. 그러나 당연히 모더니즘 디자인과 건축의 시조인 독일 바우하우스에 관심의 촉수가 뻗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927년 모더니즘의 거장으로 불리는 르 코르뷔지에의 스튜디오에 취직한다. 어쩌면 파리에 거주했다는 점이 나름 득이 됐을까? 학교이자 공방이던 바우하우스가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여성에게 차별 없는 기회가 주어질 듯했다. 실제로 재능과 도전 의식을 지닌 엘리트 여성이 다수 지원했다. 하지만 극히 소수를 제외하면 소외됐고, 그녀도 대개 여성의



1 있던 회고전이 열리면서 활발한 재조명되고 있는 샤를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 Synthèse des arts\_1955\_Archives Charlotte Perriand, © ADAGP 2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피에르 잔느레(Pierre Jeanneret)와 협업해 디자인한 장의자 'Chaise Longue Basculante B306'에 누워 있는 젊은 시절의 페리앙(1929). © ADAGP, Paris and DACS, London 2020 3 1950년대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페리앙의 '누마주(Nuage)' 수납장.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카시나(Cassina) 제품. 다양한 구조와 색상의 배열이 가능하다. Photo from Cassina 4 페리앙의 '칸사도(Cansado)' 사이드보드(1950~60년대 빈티지 가구). 사진 제공 카시나 5 르 코르뷔지에, 피에르 잔느레와 공동으로 1929년 살롱 도톤(Salon d'Automne) 전시회에서 선보인 인테리외의 가구. © ADAGP, Paris and DACS, London 2020 / © ACHP 6 1929년 살롱 도톤의 전시장을 재현한 모습. View of the installation Fondation Louis Vuitton, Paris - October 2, 2019 - February 24, 2020. Artist credits. © FLC / Adagp, Paris, 2019 © PJ / Adagp, Paris, 2019 © Charlotte Perriand / Adagp, Paris, 2019 Photo credit. © Fondation Louis Vuitton / David Bordes 7 올해 북어름 LG전자 '시그니처' 커친 스위트의 논환경 소품에서 선보였던 페리앙의 가구 디자인(옴브라 도르 체어 등). 카시나 제품. Photo by SY Ko ※ 2번과 5번 사진은 런던 디자인 뮤지엄 제공.



역할을 직조 공방으로 제한하는 '젠더 프레임'에 갇혀야 했다. 물론 샤를로트 페리앙도 르 코르뷔지에와 그의 사촌 피에르 잔느레의 후광에 가려지기는 했다. '트리오' 협업 체제에서 '3인자로 제일 끝에 언급되었고 말다나(나이가 가장 어리기도 했다). 그렇더라도 '일만 놓고 보면 그녀는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적인 산업 소재를 인테리어에 적용하는 모더니즘 미학을 활발히 펼치면서 자신만의 감성을 불어넣을 수 있었으니 말이다.

**여성 디자이너에 대한 편견을 깨다, 20대의 등돌린 질주**  
사실 샤를로트 페리앙도 편견의 희생양이 될 뻔했다. 이미 명성 높은 모더니스트 건축가이던 르 코르뷔지에를 찾아가지만 "여기는 쿠션에 수놓는 데가 아니다"라면서 퇴짜를 맞았다는, 지금은 꽤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런데 같은 해인 1927년 파리의 전람회 살롱 도톤(Salon d'Automne)에서 선보인 페리앙의 '작품'을 보고는 르 코르뷔지에가 마음을 바뀔 일지리를 제언했다. 당시 그녀의 운명을 바꾼 출판작 '치방 아래의 바(Le Bar Sous le Toit)'는 강철관, 알루미늄 같은 금속과 유리 등의 재료를 활용해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설계한 부엌이었다. '일은 곧 자유'라는 모친의 가르침을 받은 샤를로트 페리앙은 스펀지처럼 지식과 아이디어를 빨아들이며 열정적으로 작업에 임한다. 그렇게 탄생한 명작들이 르 코르뷔지에의 이니셜을 딴 일명 'LC 시리즈'다. 일례를 들자면 지금까지 인기 있는 의자 디자인으로 꼽히는 'B306 세즈 룡그(훗날 'LC4'라고 이름 붙여진다)'는 이듬해인 1928년 3인방의 협업으로 빛어낸 초기작이다. 이 의자의 사진 모델로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다리를 위로 뻗은 자세로 누워 있는 단발의 젊은 여성은 다른 어떤 샤를로트 페리앙 자신이다. 1929년에 그녀는 르 코르뷔지에, 피에르 잔느레와 살롱 도톤에서 함께 모더니즘의 정수를 자신들의 스타일로 담은 미니멀한 '개방형' 실내 공간을 연출해 큰 주목을 받았다(주거를 위한 설비라는 작품으로 공간과 가구가 더 이상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LC 시리즈는 비록 르 코르뷔지에를 대표하는 컬렉션이지만, 페리앙의 인간 중심적 감성이 스며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금도 'LC7'이란 이름으로 판매되는 회전의자라든지 1929년 당시 살롱 도톤에서 선보인 금속 다리가 달린 스톨(현재는 'LC9') 같은 경우는 페리앙이 자신의 파리 아파트를 위해 시도한 디자인에 바탕을 뒀다.

**바깥세상을 향한 끝없는 호기심, 지구촌을 누비다**  
10년간 함께하다가 1937년 샤를로트 페리앙은 르 코르뷔지에 사무실을 떠난다. 르 코르뷔지에가 가구나 인테리어 디자인보다는 건축과 도시계획 분야로 무게중심을 옮긴 시기였다(물론 페리앙도 건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립 건축 등의 구상에 나선다). '트리오' 협업 시절에 페리앙 레제 등 당시 파리의 문화 예술계를 풍미하던 예술가들과 친분을 쌓은 페리앙은 활발한 기질을 살려 산과 바다로 여행을 다니면서 자연과 교감했고, 그 경험담을 사진에 담기도 했다. 또 효율과 기능성에 치우친 모더니즘 디자인에서 벗어나 보다 유기적이고 자연미가 녹아든 디자인에 눈길을 두게 된다. 그리고 1940년 그녀의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된다. 일본 정부에서 산업디자인 자문(advisor) 역으로 초청받아 멀리 극동 아시아행을 택한 것이다. 일본 체류는 그녀에게 신선한 영감으로 작용했다. 이미 자연스러움이 배제된 차가운 경향으로 흐른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을 새겨두고 있던 차에 밀짚, 대나무 같은 재료를 쓰는 수공예적 디자인에 매료되었고, 자연과 삶의 조화를 골똘히 모색하게 된다. 당시 그녀와 일로 만난 청년이 나중에 일본 산업디자인의 선구자로 우뚝 선 야기 소리(Sori Yanagi)다. 1942년 페리앙은 의도치 않게 인도차이나반도까지 가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일본을 떠나야 했는데, 항공이 붕괴되면서 본국으로도 돌아가지 못했기에 당시 프랑스령 식민지이던 인도차이나반도로 향한 것이다. 그녀는 특유의 진취성으로 그곳에서도 공예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고, 해군 소속이던 자크 마르탱을 만나 결혼까지 한다. 1946년 파리로 돌아왔을 때는 어린 딸 페르네트와 함께였다. 그 뒤로도 페리앙의 타지 생활은 이어졌다. 남편이 항공업체인 에이프랑스에서 일하게 되면서 도쿄와 리우데자네이루로 파견되자 파리와 여러 도시들을 오가면서 문화적 지평을 더욱 넓혔다.



**협업의 자취 속에서 고집이던 독자적 아카이브**  
어느덧 중년이 된 샤를로트 페리앙은 르 코르뷔지에와 다시 뭉친다. 1950년 그가 남프랑스의 항구도시 마르세유에 지은 유니테 다비타사용(Unité d'Habitation) 주택단지 내 주방 모델을 디자인했고, 나중에 파리 시테 대학의 기숙사 내부 디자인 작업에도 참여했다. 이를 계기로 나온 페리앙의 창의적 결과물 중에는 미담이문을 단 아름답고도 실용적인 책장도 있다. 페리앙은 또 1940년대에 처음 만난 디자인·건축계의 또 다른 거장 장 프루베(Jean Prouvé)와도 파트너로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다. 당시 파리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를 이끄는 허브 중 하나이던 스테프 시몽(Steph Simon) 갤러리가 이들 '듀오'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파리의 갤러리나 스튜디오는 국제적인 유통이나 생산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면서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았다. 90대까지 정수한 샤를로트 페리앙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제약 속에서도 늘 에너지를 잃지 않았고, 창조적 행보의 끈을 놓지 않았다. 다행히 그녀와 르 코르뷔지에, 피에르 잔느레가 협업해 선보인 디자인 가구는 1960년대에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카시나(Cassina)에서 다시 생산했고, 페리앙은 1980년대에 디자인 자문으로 제작 방식에 대해 조언해주기도 했다. 기록은 있듯, 디자인 사전에도 별도로 명기되지 않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기여도가 점점 더 드러나고 그녀의 디자인 스케치를 바탕으로 '제품'으로 구현하는 사례도 잇따라 생기면서 사후에도 페리앙 아카이브가 커지고 있다. 인테리외 공간이나 건축 설계 같은 경우는 재조명 작업과 함께 곳곳에서 열리는 회고전이 아닌 디자인 행사에서 '전시 작품'으로 재현되기도 한다. 가을(10월)에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이제 '생활의 예술'이라는 일상 디자인의 큰 명제 아래 소비자가 조력자가 아닌 독자적 아카이브를 지닌 열정적인 창조자로 기억되고 있다. 글 **고성연**







Interview with\_이경미

# you will never walk alone

어릴 적 놀이동산이나 학교 운동회에서 본 기억 때문일까. 한껏 탐스럽게 부푼 은박 풍선을 보고 있자면 팬스레 마음이 설레곤 한다. 이경미가 그리는 풍선은 한쪽이 찢그러지거나 바람이 빠져 쪼그라들었지만 알록달록한 색감과 빛에 반사돼 반짝이는 모습이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건 여전히 그렇다. 이렇듯 그는 묘하게 어긋나고 때로는 딱 맞아떨어지는 감각의 지점을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채로운 조형 언어로 표현해왔다. 그만큼 이경미의 아틀리에에는 볼거리로 가득 찬 근사한 쇼룸 같다. 올라올에는 전시장으로 탈바꿈한 자신의 작업실에서 미술 애호가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그를 만났다.



##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림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

단박에 눈을 사로잡는 화려하고 강렬한 색감을 입은 풍선, 행성, 고양이, 민화 캐릭터... 보는 것만으로도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작품을, 일견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각각의 소재는 자타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하다. 하지만 결국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로 귀결된다. 광대한 철학빛 우주 한 가운데 떠 있는 우주 비행사, 귀를 쫑긋 세우고 뒤돌아보는 고양이, 그리고 'You Will Never Walk Alone'이라고 쓰인 주름진 은박 풍선 모두 희망 섞인 위로를 담고 있다. 바람 빠진 풍선은 비록 절망적이지 않지만, 팽팽하게 날 서 긴장하던 때를 지나 조금은 편안해지고 현명해진 모습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런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친필한 20대에 지나 어느덧 40대에 접어든 저 자신이기도 하고요.” 풍선은 우리네 삶과 같다고 이경미는 말한다. 곁에 있는 눈부신나 조각 인은 비어 있고, 한없이 연약하며 생명이 짙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는 또 무한한 우주와 비교하면 턱없이 미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도 스스로 위로받았다고 덧붙였다. “그토록 광활한 우주에서 개인은 정말 허아에도 못 미치는 존재잖아요. 도리어 그 사실이 제게는 힐링이었어요. 제 고민과 갈등이 점 하나에 차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 팔색조 작품 세계와 공간감 돋보이는 전시 구성

이경미의 작품 세계를 채우는 다양한 소재는 때때로 하나의 화면을 넘어 실이 뒤틀리며 어우러지기도 한다. 신재현이 미치들이 서로 미묘하게 빠지는 와중에도 이렇듯 싱크가 맞는 신동함을 보여준다. 마치 수많은 정보가 한데 들어 있는 주제별 백과사전처럼, “생존 작가를 제 작업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특히 요즘에는 작가도 전사뿐 아니라 소셜미디어까지 소통 채널이 여럿이다 보니 오히려 하나의 고정된 상(像)을 추구하기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요.” 그가 다변적이고 확장성 있는 작업에 몰두해온 이유다. 이번엔 새롭게 선보인 15점의 시리즈에서는 이러한 다층적 이미지의 조합이 더욱 두드러진다. 르네상스 시대를 품은 한 독일 예술가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의 목판화 시리즈 '묵시록(Apocalypse)'(1498)을 그대로 확대, 재현하고 그 위에 수집한 오브제 이미지를 훌쩍리듯 입체적으로 구성했다. 뒤러에 대한 오미주인 셈인데, 15점인 것도 원작 시리즈의 1번부터 15번까지 순사와 작품명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이다. 15세기 목판인쇄한 묵시록 연작과 21세기 출판물의 대중적 이미지가 뒤섞인 채 5백 년 넘는 긴 세월을 관통하면서 이질적인 동시에 매력적인 조화를 이루낸다. 자체 제작한 우드 패널에 회화 작업을 해 작가 특유의 입체감을 살린 정도 눈에 띈다. 덕분에 화폭에 담긴 정보량이 늘어면서 조형 언어의 확장은 물론, 더 나아가 작품이 걸린 공간으로의 물리적 확장도 가능토록 했다. 실제로 이경미의 작업에서 공간감은 중요한 화두 중 하나다. 맞춤 제작한 우드 패널에 작업해 원근감을 극대화한다면, 알개 돌출된 저부조 형태로 만들어 입체감을 살리는 식으로 구성하는 전시 공간은 그의 전례특하라 할 수 있다.

## 올가을을 물들이는 아트조선 아틀리에 프로젝트 III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자신의 아틀리에에서 펼쳐는 개인전 (You Will Never Walk Alone). 이 전시에서 이경미는 작업실 전체를 하나의 설치 작품처럼 선보임으로써 공간감 넘치는 전시 구성에 대한 그녀의 욕구

를 미어졌 풀어냈다. 지난해 '석주미술상'을 수상한 그는 올해 홍콩, 상하이, 자카르타 등지에서 전시를 하는 분주한 일정을 앞두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아쩔 수 없이 계획을 접어야 했다. 이번 아틀리에 전시는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국내 미술 애호가들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것이다. 그래서 관람객이 단순히 작품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을 통해 작품과 소통하고 작업 세계를 다각적으로 경험하며 감상의 차원을 확장해볼 수 있도록 세심한 공을 들였다. 예컨대 작업실 벽 전면에 띠를 두른 듯 벽화를 제작해 벽에 걸린 회화와 천장의 행잉 작품이 하나의 시시처럼 이어지도록 연출했다. 작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시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덤이다. “미술을 잘 모르고 마냥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편안하게 경험하러 오세요. 제 작업실이 사친 하나 있는 기가 막히게 잘 나오는 곳이기도요.” 작가는 ‘시친 맛집을 은근히 강조하면서 누구든 부담 없이 즐긴다는 마음으로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02-724-7832 글 윤다람 아트조선 기자 에디터 고성연



1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만난 이경미 작가. 2, 3 이경미 작가는 아트조선 아틀리에 프로젝트 III의 주인공으로 올가을 자신의 작업실을 공간감 돋보이는 근사한 전시장으로 탈바꿈시켰다. 11월 3일 개막한 이경미 개인전은 11월 14일까지 계속된다. 1~3 Photo by 박현성 4 이경미, 'Green-Tiersch Love'(2020), Oil and ink on collaged paper, 42x60cm. 5 이경미, 'You Will Never Walk Alone'(2020), Oil on constructed birch panel, 105x105x11cm. 6 이경미, 'Solar System at the Moment'(2016~2017), Oil on constructed birch panel, 55x55x7cm@3pcs. 4~6 이경미 아트조선



아트조선



(우부터 시계 방향으) 반블리드 아펠 스위트 알함브라 워치 지름 22.7x22.7mm의 알함브라 모티브 옐로 골드 케이스에 양측적인 2요세 패턴 옐로 골드 다이얼을 얹었다. 퀴츠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1천만원대, 문의 1668-1906

까르띠에 마이용 드 까르띠에 주얼리 워치 지름이 16x17mm에 불과한 앙증맞은 케이스와 불꽃 같 넘치는 링크 브레이슬릿으로 주얼리를 능가하는 화려함을 드러낸다. 케이스, 크라운, 브레이슬릿 모두 핑크 골드 소재로, 총 25개의 브레이슬릿 링크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3천9백만원대, 문의 1566-7277

다이아니 미모사 워치 총 77석에 달하는 다이아몬드와 10캐럿 상등의 사파이어를 세팅해 스타처럼 빛나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하이 주얼리 미모사 워치. 1억1천9백만원, 문의 02-3213-2141

파이제 트라디션 워치 핑크 골드 케이스에 장중한 조밀하고 유연한 핑크 골드 링크 브레이슬릿이 돋보이는 모델. 베젤과 다이얼 인텍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강조했다. 피자 59P 퀴츠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케이스 지름은 19mm. 4천만원대, 문의 02-3479-1802

쇼케 초퀵사이 애런 워치 배럴을 포함한 지름 21.5mm 케이스에 총 2백50개의 브레이슬릿 링크 다이아몬드와 인텍적인 호넷사 모티브를 세팅한 하이 주얼리 워치. 다이얼과 브레이슬릿에도 각각 2백26개, 3백93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손목 위에 눈부신 광채를 선사한다. 1억원대, 문의 02-3442-3359

쇼퍼드 해피 다이아몬드 워치 케이스 지름 25.8mm로 미니 다이얼과 아우트라인 시야를 확장하는 5개의 무빙 다이아몬드를 감상할 수 있는 유니크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다이얼, 베젤, 링크를 포함한 로즈 골드 케이스 전체에 총 6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3천1백20만원, 문의 02-6905-3390 에디터 이혜미

오버핏 실루엣과 카탄인 아연 포켓 디테일이 시시스러운 포플린 셔츠 1백39만원 발렌티노, 문의 02-2051-4652

# tiny lady

드레스 워치보다 작고 브레이슬릿보다 눈부신, 색다른 매력의 스몰 페이스 워치 6.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time to innovate

BREGUET



클래식 더블 투르비옹 5345 쿼드볼로지



트래디션 쿼넘 레트로그레이드 7597

40mm, 핀 버클을 더한 악아기죽 스트랩과 함께 제공한다. 케이스 백을 통해 아이코닉한 골드 로터를 비롯한 무브먼트의 정교한 자세를 감상할 수 있다.

**트래디션 담므 7038(Tradition Dame 7038)** 트래디션 컬렉션의 새로운 여성용 모델, 무지개빛의 티타늄 머더브릿지 소재 오오프센터 다이얼과 샌드블라스트 처리한 딥 브라운 컬러의 메인 플레이트, 오렌지 컬러 카프 레더 스트랩의 감각적인 조화가 돋보인다. 섬세한 흠을 판 로즈 골드 케이스의 베젤에는 총 6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강조했고, 크라운에는 카보숑 컷 루비를 더해 아름다운 정점을 찍었다. 투명한 케이스 백을 통해 셀프 와인딩 칼리버 브레게 505SR의 정교한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 이 시계는 부티크 익스클루시브 모델로 특별 제작한 클라시 백과 함께 제공한다.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새들(saddle) 공예 기술을 계승하는 장인이 제작한, 워치 스트랩과 동일한 오렌지 컬러 숄더가죽 소재의 테일러-메이드 클라시 백. 트래디션 담므 7038의 베젤을 장식한 로제트(rossette) 패턴을 반영한 클래시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3149-9559



특별 제작한 클라시 백과 함께 제공하는 트래디션 담므 7038

**클래식 더블 투르비옹 5345 쿼드볼로지(Classique Double Tourbillon 5345 Quai De L'Horloge)** 창립자 루이 브레게가 전설적 시계 제작에 몰두했던 쿼드볼로지 공방에 한정하는 의미를 담은 역작. 섬세하게 조각한 무브먼트 Cal. 588N의 모습을 드러낸 압도적인 다이얼 위로 2개의 투르비옹이 자리한다. 이들을 잇는 중앙의 브리지에 의해 메인 플레이트가 12시간마다 1회 회전하며 시간을 알리는 방식으로, 월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오차 없이 극도로

정확한 시간을 알릴 수 있도록 고안했다. 한편 시야에서 크리스털 케이스 백을 통해서도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는데, 골드 플레이트에 세밀한 디테일까지 새겨 넣은 파리 쿼드볼로지 39번기의 공방 건물 모습을 브레게가 지난 기술적 천재성과 예술가적 장인 정신을 동시에 상징시킨다. 플래티넘 소재 케이스의 지름은 46mm이며, 5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트래디션 쿼넘 레트로그레이드 7597(Tradition Quantième Retrograde 7597)** 18세기 후반 하우스에서 제작한 전설적인 서브스칼린 위치에서 영감을 얻은 컴플리케이션 모델로 건축학적 무브먼트 Cal. 505Q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낸 완벽한 대형 형태의 페이스가 아름답다. 케이스 12시 방향에 위치한 별도의 아워, 마닛 다이얼 아래로 3시와 9시 방향에 걸쳐 띠 형태로 자리한 레트로그레이드 방식 날짜창이 돋보이며, 이는 10시 방향에 위치한 푸셔를 통해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다. 화이트 골드 또는 로즈 골드 소재로 선보이며, 케이스 지름은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 2020년 다수의 시계 이벤트는 취소되거나 디지털 플랫폼 형식으로 대체되었고, 지난 3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스위치 그룹의 '타임투무브(Time to Move)' 행사 역시 올해는 만나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혁신적 워치메이킹을 향한 도전과 노력을 멈추지 않는 유수의 시계 명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새로운 타임피스들을 공개하며 많은 시계 애호가들의 아쉬움을 해소해주었다. 미래를 향한 진보적 걸음을 보여준 5개 워치메이커의 2020 신제품 주요 모델을 소개한다.

BLANCPAIN



빌레레 컴플리트 캘린더

**빌레레 컴플리트 캘린더(Villeret Complete Calendar)** 블랑팡의 근간이 되는 마을의 이름 빌레레를 컬렉션 이름으로 차용한 이 모델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시대를 아우르는 클래식한 면모를 지닌다. 올해는 레드 골드로 완성한 케이스와 트랜드르 페르올 블루 컬러의 조합이 눈여겨볼 부분. 선바스트 기법으로 마감한 관능적인 다이얼에 뛰어난 미감으로 채운 컴플리케이션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컷아웃 방식으로 디자인한 세이지 모양의 시계바늘과 오일과 월을 표시하는 두 창, 다이얼 중심을 회전하는 날짜 인디케이터와 익살스러운 표정을 한 6시 방향 로메이프로 하얀색의 풍격을 드러낸다.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6654로 구동하며, 충격으로부터 무브먼트를 보호해주는 안전 시스템을 적용, 특허 받은 언더-라그 코넥트 듀얼 레버를 가볍게 푸시하는 것만으로



피프티 패덤스 바티스카프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모든 캘린더 기능을 조정할 수 있다. 워치의 매력은 케이스 뒷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투명한 케이스 백을 통해 브리지를 장식한 코트 드 제네브 모터브와 레드 골드 로터 위 세심하게 작업한 하나름 패턴 등 흠집을 데 없이 아름다운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다.

탁월한 성능과 견고함을 자랑하는 피프티 패덤스 바티스카프는 컬렉션 DNA를 고수하며 진화를 거듭해온, 블랑팡을 대표하는 다이버 워치다. 수심 300m 방수 기능을 갖춘 이 모델은 자연의 색감과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내세운 새로운 라인업으로 선보인다. 다이얼은 각도에 따라 빛과 컬러감을 극대화하는 선레이 패턴에 반복된 폴라싱 작업과 스네일 처리, 코팅을 덧입히는 일련의 섬세한 작업으로 구현한 깊은 색감의 그라뵈트로 물들었다.

이 모델에 장착한 칼리버 F385는 0.1초 단위까지 측정 가능해 시간의 정확성을 높인다. 크로노그래프에서 가장 실용적인 기능인 날짜창을 더해, 4시 방향의 푸시 피스로 크로노그래프를 완전히 리셋, 재구동하는 플라이백 기능을 갖췄다. 지름 43.6mm 블랙 세라믹 케이스에 그린 세라믹 인서트와 갖춘 로테이팅 베젤을 올려 케이스를 완성했다. 나토 혹은 세일 캔버스 스트랩을 매치해 선보인다.



피프티 패덤스 바티스카프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피프티 패덤스 바티스카프 데이 데이테

**피프티 패덤스 바티스카프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Fifty Fathoms Bathyscaphe Chronographe)** 탁월한 성능과 견고함을 자랑하는 피프티 패덤스 바티스카프는 컬렉션 DNA를 고수하며 진화를 거듭해온, 블랑팡을 대표하는 다이버 워치다. 수심 300m 방수 기능을 갖춘 이 모델은 자연의 색감과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내세운 새로운 라인업으로 선보인다. 다이얼은 각도에 따라 빛과 컬러감을 극대화하는 선레이 패턴에 반복된 폴라싱 작업과 스네일 처리, 코팅을 덧입히는 일련의 섬세한 작업으로 구현한 깊은 색감의 그라뵈트로 물들었다.

이 모델에 장착한 칼리버 F385는 0.1초 단위까지 측정 가능해 시간의 정확성을 높인다. 크로노그래프에서 가장 실용적인 기능인 날짜창을 더해, 4시 방향의 푸시 피스로 크로노그래프를 완전히 리셋, 재구동하는 플라이백 기능을 갖췄다. 지름 43.6mm 블랙 세라믹 케이스에 그린 세라믹 인서트와 갖춘 로테이팅 베젤을 올려 케이스를 완성했다. 나토 혹은 세일 캔버스 스트랩을 매치해 선보인다.

**피프티 패덤스 바티스카프 데이 데이테(Fifty Fathoms Bathyscaphe Day Date)** 1970년대 블랑팡이 출시한 다이버 워치를 리뉴얼한 이 모델은 빈티지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극도로 현대적인 메카니즘을 적용했다.

OMEGA



컨스텔레이션 오메가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41mm 세드나 골드™ 모델

**컨스텔레이션 오메가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41mm(Constellation OMEGA Co-Axial Master Chronometer 41mm)** 시계를 종합한 스타일을 상징하는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컬렉션에서 출시된 남성용 워치 케이스 지름 41mm의 새 타임피스. 아이코닉한 클러와 케이스 앞쪽 반달 모양의 면 등 고유한 디자인 코드를 유지하는 동시에 케이스와 클러의 테두리를 베벨 가공 처리해 기존 모델보다 훨씬 슬림한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에 발맞춰 보다 슬림해진 헨즈와 맨해튼 고층 프리덤 타워에서 영감을 얻은 인덱스가 어우러진 다이얼은 도회적 무드를 풍긴다. 한편 디자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재의 접목 또한 특징. 스틸, 골드,

컬러, 세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는 라인업 전반에 폴라싱 처리된 세라믹 소재 베젤을 장착, 1982년 오리지널 맨해튼 컨스텔레이션 모델의 환상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신제품은 유니크한 메탈 장식의 황금 러버 라이닝 블루 레더 스트랩을 장착했고, 기존 39mm 모델의 브레이슬릿 또는 레더 스트랩을 호환 가능하다. 스위스 계측학원정확화(METAS)의 인증을 받은 극도로 정교한 오메가 마스터 코-액시얼 칼리버 8900/8901로 구동한다.

**스피드마스터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 알링기(Speedmaster "Dark Side of the Moon" Alinghi)** 스위스 요트 팀 알링기의 세일링 파프카스를 기념하며 선보이는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문 워치. 알링기의 TF35-카티머만 선체에서 영감을 얻은 가볍고 얇은 수동 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1865는 레이저 가공 처리를 통해 발집 구조를 입힌 메인 플레이트와 베젤 브리지, 블랙 카본 패턴 장식의 브리지 등으로 구성했다. 특별히 이 모델은 열정을 상징하는 레드, 기술을 상징하는 블랙으로 이뤄진 알링기 로고와 조화를 이루는 컬러 배치가 돋보인다. 인쪽 면에 레드 레버를 적용한 블랙 창공 레더 스트랩, 블랙 산화지르코늄 세라믹 소재 케이스가 강렬한 조화를 이루며 슈퍼 루미노바 처리한 타카미타 스케일과 장차 시자 푸셔를 장식한 유광 레드 칼라의 알링기 로고 등이 스포티즘 무드를 배가한다. 다이얼 3시 방향의 4분/5분 카운터로 물 위에서든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6시 방향에는 알링기 로고로 장재성을 강조한 서브 다이얼을 더했다.

**드 빌 트레저(De Ville Trésor)** 오메가를 대표하는 여성 컬렉션 드 빌 트레저에 새로운 소재와 컬러를 입혔다. 은은한 달빛을 연상시키는 문사인™ 골드 소재를 필두로 골드, 스틸 소재를 적용한 케이스 지름 36mm, 39mm 버전의 대체로운 모델을 전개한다. 실크 패턴을 인그레이빙한 유백색 래커 처리 다이얼 또는 화이트 자개 다이얼, 케이스 위에서 곡선을 그리는 38개의 다이아몬드 장식, 시그니처 플라워 패턴 크라운이 어우러져 극도로 우아하다. 케이스 백에 새긴 'Her Time' 디자인의 패턴 역시 이 시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로즈, 그린, 누드 컬러 등 컬러풀한 스트랩 중 선택 가능해 다양한 스타일에 적용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다. 모든 모델은 오메가 칼리버 4061로 구동하며, 5년간의 품질 보증을 제공한다. 문의 02-511-5797



스피드마스터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 알링기



드 빌 트레저 퀴츠 39mm 문사인™ 골드 모델

JAQUET DROZ



**러빙 버터플라이 오토마톤(Loving Butterfly Automaton)** 오토마톤 워치 영역에서 수백 년간 정성을 지켜온 브랜드 자케 드로즈 올해도 야심작이 러빙 버터플라이 오토마톤 워치로 무르익은 역량과 장인 기술을 가집함이 뽐났다. 28개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이 모델은 1774년 자케 드로즈의 시초가 되는 피에르 자케 드로즈의 아들 헨리 루이스 자케 드로가 그린 드로잉을 모티브로 한다. 3차원의 입체적이고 아름다운 오토마톤 기술로 이를 구현했다. 원래 1억천 년이 지난 나무지만, 광물로 분류되는 친칠라 레드로 다이얼에 숲을 표현했다. 그리고 핸드 인그레이빙한 골드 조각으로 깊고 웅장한 나무와 나뭇, 마차를 탄 큐피드 이블리게 장식을 담았지만, 무엇보다 두 소재의 극적인 질감 차이를 볼 수 있어 매력적이고 관능적이다. 시계에 맞춰 돌아가는 마차 바퀴와 팔력은 나비의 움직임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더블 베젤 구조로 6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칼리버 2653 AT1로 구동하며, 블랙 악아기죽 스트랩으로 고급스러운 인상을 선사한다. 문의 02-2142-6127



**파노 루나 투르비옹(Pano Lunar Tourbillon)** 워치메이킹에서 기술력과 예술성에서 독보적인 지위에 위치한 글라슈테 오리지널은 올해 새로운 하이엔드 마스터피스인 파노 루나 투르비옹을 고안했다. 25피스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이 모델은 고전적이고 기계적인 매력을 뽐낸 풍기는 투르비옹과 핸드 인그레이빙으로 장식한 다이얼의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시각적이고 매력적인 컴플리케이션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다이얼 왼쪽에 위치한 시간과 분을 나타내는 메인 디스플레이와 플라잉 투르비옹 그리고 케이스 안에 스물 세컨즈를, 오른쪽에는 하늘을 나타내는 문메이징과 브랜드의 시그니처 파노라마 데이테 모듈을 더했다. 컴플리케이션의 조화로운 밸런스 덕에 개성을 지닌 다이얼임에도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10개의 화이트 스크루와 8개의 레플레이션 스크루로 시계의 정확성을 최대치로 높은 칼리버 93-12로 구동하며, 플라티늄 풀링을 장착한 블루 루이제나 악아기죽 스트랩으로 하이엔드 워치의 기품을 유지한다. 문의 02-6370-4062 애틀리, 이우이



GLASHUTTE ORIGINAL

오메가 마스터 코-액시얼 칼리버 8900/8901



# The pioneer spirit lives on

시도하고, 실패하고, 싸우고, 끝내 우아하게 이기는 끈질긴 도전 정신을 담은 시계가 있다. 론진과 역사를 함께한 최초의 비행사와 탐험가를 기념하는 론진 스피릿 컬렉션. 과거 영웅들과 절대로 늙지 않는 그들의 도전, 정신력을 기념하는 컬렉션이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여성 비행사 최초로 대서양을 건넌 하늘의 퍼스트레이디 아멜리아 에어하트 (Amelia Earhart), 프랑스를 대표하는 극지 탐험가 폴-에밀 빅토르 (Paul-Emile Victor), 미국의 최연소 여성 비행사 엘리노어 스미스 (Elinor Smith), 그리고 비행사이자 투자가, 공학자, 영화 제작자, 감독으로 활동하며 영화 <아이 언텐> 토니 스타크의 모티브가 된 하워드 휴즈 (Howard Hughes) 같은 전설적인 탐험가들이 여행과 모험의 동반자로 신뢰한 시계는 론진이었다. 론진 스피릿 컬렉션은 이러한 개척자들이 땅,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할 때 마다 의지한 론진 타임피스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

론진은 1832년부터 스위스 쌍피미에에 기반을 두고 탄탄한 전통과 전문화된 워치메이킹, 그리고 퍼포먼스에 대한 강한 열정으로 시계를 만들어오고 있다. 다양한 세계 스포츠 행사의 타임키퍼는 물론, 많은 국제 스포츠 연맹의 협력사로 함께 하며 세대를 거쳐 쌓아온 오랜 경험을 토대로 도전하는 사람들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응원해온 론진. 날개 달린 모래시계 모양의 브랜드 엠블럼을 케이스백에 새긴 론진 스피릿 역시 그러하다. 시계에 관련된 신뢰성, 정확성, 견고성, 그리고 독창적인 기술력을 담은 이 컬렉션은 매 순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게 한 이들의 용기를 기억하게 한다.



COSC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1만 인종 실리콘 헤어스프링을 갖춘 칼럼 휠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L688.4를 장착하고 스틸 브레이슬릿을 매차했다. 가죽 스트랩으로도 선택 가능하다. 새틴 마감 처리한 스틸 케이스 지름은 42mm다. 론진 스피릿 크로노그래프 4백10만원 **론진**.

● sponsored by LONGINES

햇살을 담은 선웨이 블루 다이얼에 지름 42mm의 스틸 케이스를 매차했다.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L688.4를 탑재했고, 다이얼과 같은 블루 가죽 스트랩을 더해 통일감을 줬다. 스트랩은 스틸로도 선택 가능하다. 3백만원 **론진**.







지름 40mm의 스틸 케이스에 그레이드  
살버 다이얼을 매치해 깔끔한 느낌을 강조했다.  
머신이 착용해도 부담 없는 사이드.  
무브먼트 L888.4로 구동하며 반구형  
사파이어 글라스가 슈퍼 루미노바 코팅한  
아라비아숫자 인덱스와 블랙 샌드블라스트  
핸즈를 보호한다. 오른쪽 가죽 스트랩,  
오른쪽은 나토 가죽 스트랩 버전.  
스틸 브레이슬릿으로도 선택할 수 있다.  
3백70만원 론진.



AMELIA EARHART



HOWARD HUGHES



PAUL-EMILE VICTOR



ELINOR SMITH

# #Excellingoneself

정확성은 기본, 글러브를 착용하고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오버사이즈 와인딩 크라운부터 시인성이 뛰어난 아라비아숫자 인덱스, 그리고 야간 비행을 위해 발광 코팅한 핸즈까지. 세기의 비행사들이 믿고 의지한 론진 시계의 특징에 개척자들의 도전 정신까지 담은 컬렉션, 론진 스피릿.

## 극한의 순간 함께한 정확성

당신이 비행기를 타고 상공을 날고 있는데 해발 3,000m에서 자유낙하를 하게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손목시계는 당신이 해수면에 닿기까지 30초가 남았음을 알려준다. 이 30초 안에 낙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당신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30초. 이런 모험에선 그 어떤 것보다도 정확한 시간 측정이 중요하다. 수많은 탐험가와 비행사는 위험한 순간마다 자신들의 인생을 걸 만큼 론진의 시계를 신뢰했다. 1930년대 아메리아 에어 하트가 14시간 56분 만에 혼자 대서양 논스톱 횡단 비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폴-에밀 빅 토르가 49일 동안 최대 영하 40℃의 극지 탐험을 경험했을 때, 엘리노어 스미스가 3만9천 576피트 고도 기록을 경신했을 때, 그리고 하워드 휴즈가 3일 19시간 14분으로 세계 일주 비행을 마쳤을 때 이들의 손목엔 론진이 함께했다. 이들은 저널리스트 찰스 펜지와 인터뷰에서 미지의 땅을 향해 극심한 기후에 맞서 대회를 항해하고, 새로운 항로를 열어 비행 기록을 달성하는 등 고비마다 정확성 높은 론진이 함께 해 성공적인 도전을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론진 스피릿 컬렉션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 고도의 정확성과 긴 수명을 위해 실리곤 헤어스프링을 갖춘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L888.4와 L688.4를 장착했다. 각각 64시간과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데, 이 두 무브먼트는 COSC에서 공식 인증을 받았다.



## 첨단 기술이 구현한 우아함

오버사이즈 크라운, 플랜지, 크리스털 글라스 둘레의 분명한 층, 다이얼의 폰트, 다이아몬드 형태 인덱스, 야광 처리한 큰 바늘 핸즈 등의 요소는 모두 앞다투어 비행 기록을 세우던 20세기 초 파일럿 위치의 스타일을 대변한다. 실제 상황에 유용한 이러한 요소들을 재작업하고 업데이트해 현대적이다.

자인과 조화롭게 융합한 시계가 바로 론진 스피릿이다. 양면에 여러 층으로 반사 방지 코팅 처리한 반구형 사파이어 크리스털, 스크루-인 크라운, 6개의 스크루로 고정된 인그레이빙 케이스 백이 과거와 현대의 디자인을 융합해 컬렉션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레이드 실버와 매트 블랙, 혹은 선레이 블루 다이얼에 스탠딩 5개의 별은 론진 전통에 따라 무브먼트의 퀄리티를 신뢰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 별 5개는 평가할 수 있는 최고 점수다. 론진 스피릿 컬렉션에는 스틸 브레이슬릿 혹은 다크 브라운이나 라이트 브라운, 블루 가죽 스트랩을 장착할 수 있다. 프레스티지 에디션 구매 시에는 스틸 브레이슬릿에 추가로 가죽 스트랩과 나토 가죽 스트랩이 제공된다. 문의 02-310-1597 에디션 장려음



1 론진의 역사를 함께한 탐험가들.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아메리아 에어하트, 폴-에밀 빅토르, 엘리노어 스미스, 하워드 휴즈. 2,4 블랙 다이얼에 다크 브라운 가죽 스트랩을 매치하면 인장된 느낌을, 스틸 브레이슬릿을 매치하면 컬러 대비 효과로 받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3 지름 40mm 스틸 케이스에 살버 다이얼과 스틸 브레이슬릿을 매치한 버전. 5 6개의 스크루로 고정된 인그레이빙 케이스 백





# Someone here in between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호텔에서  
모던 클래식 룩과 함께 보낸 어느 늦가을 하루.  
photographed by **kim sin ae**

체크 패권을 다한 오버사이즈 핏의 개버딘 트렌치코트 499,600원, 허니 색상의 체크 울 태완코트 재킷 299,450원, 체크 스트레치 저지 타일복톱 81만원, 조트파즈 스타일의 저지 레깅스 199,420원 모두 **바버리**, 모노그램 캔버스 소재 비스텐 50 수트 케이스 899,960원 **루이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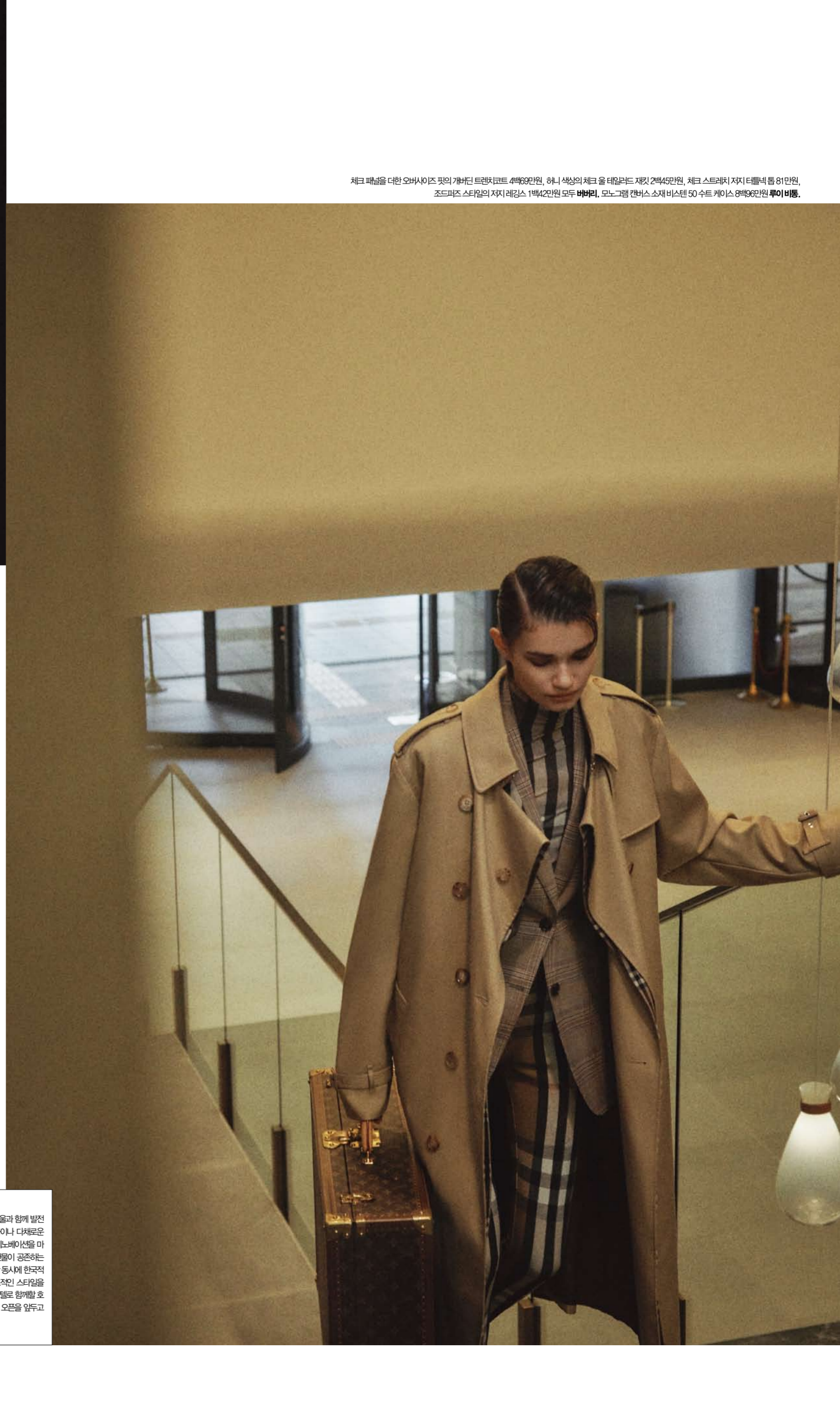


장소: **호텔 코리안 (Hotel Koreana)**

구조적인 실루엣의 싱글브레스트 재킷 가격 미정, 프린지 디테일 스카프 90만원, 블랙 레더 벨트 가격 미정, 프린지 롱스커트 2백 20만원, 라커 솔을 다한 브러시드 레더 펌프스 1백30만원 모두 **프리다**, 다크 톤 그레인 송아지 가죽 새들(saddle) 백 4백15만원 **디올**.



**The Heritage 1972**  
1972년 개관한 이래 약 48년 동안 서울과 함께 발전 해온 호텔 코리아는 오랜 시간만큼이나 다채로운 스토리를 품고 있는 공간이다. 최근 레노베이션을 마친 호텔 코리아는 고급과 사원식 건물이 공존하는 덕수궁차림 레트로한 분위기를 간직한 동시에 한국적인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보적인 스타일을 지니고 있다.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호텔로 함께할 호텔 코리아는 오는 12월 1일 라뉴얼 오픈을 앞두고 있다. 문의 02-2171-7000, [www.koreanahotel.com](http://www.koreanahote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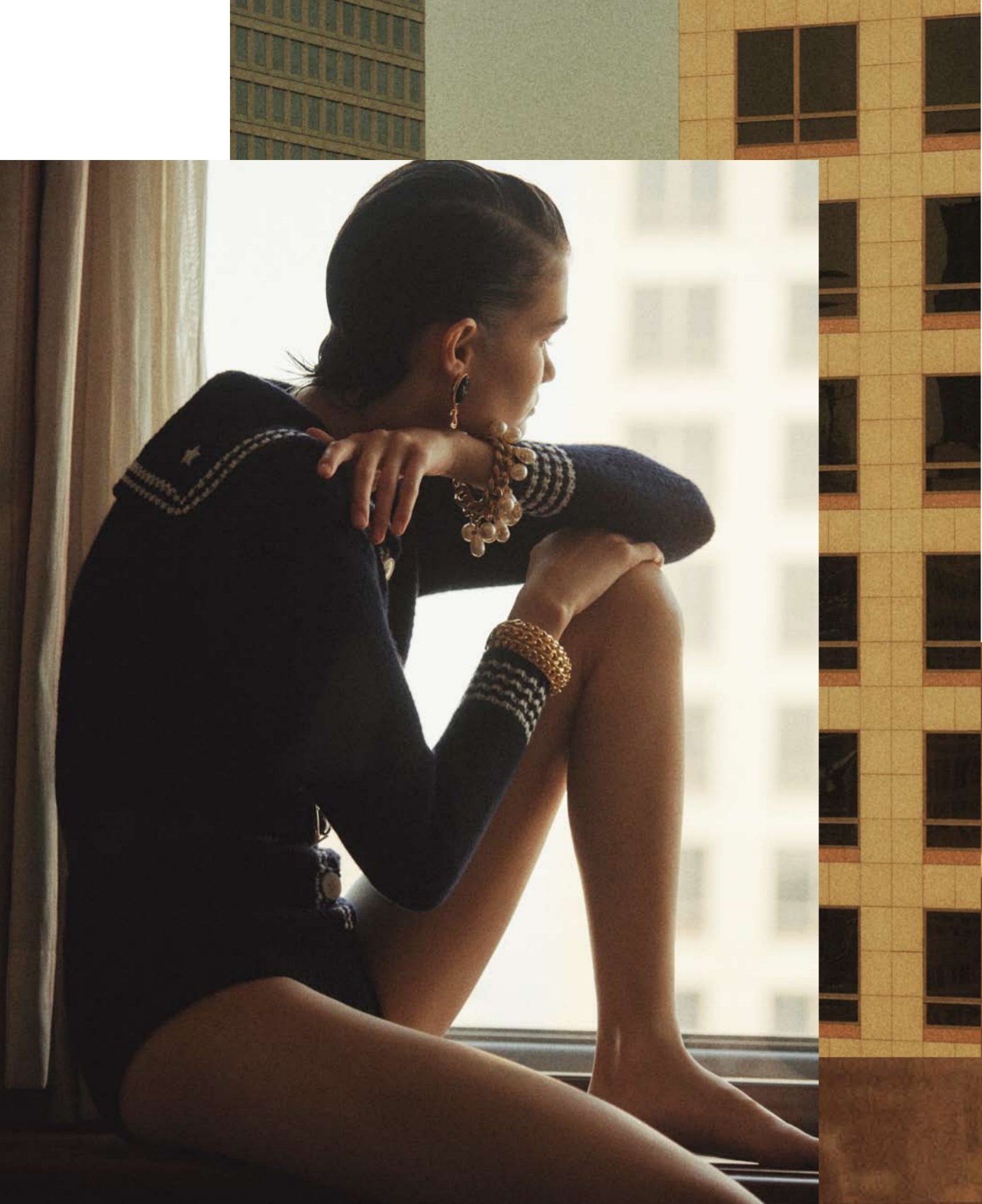
스탠드칼라 벨벳 재킷, 라본과 러플 장식 블라우스, 버튼 디테일의 블랙 플루트 맨투 맨투 모두 가격 미정 **셀린노**, 송아 모티브의 골드 펜던트 이어링, 브라운 컬러 스킨부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시아한 실크 모슬린 소재 라본의예르네 블라우스, 하이 웨이스트 미디 버뮤다 쇼츠, 페이퍼트 스트레치 캔버스 소재 아일라 오버 더 니 부츠, 볼드한 골드 메탈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인토니 바카렐로**, 블랙 컬러 재킷 1961 미니 로보 백 2백65만원 **구찌**, 아이코닉 V 모티브 에센셜 V 기요슈 이어링 99만원, 모노그램 패턴을 각인한 나노그램 컷트 브레이슬릿 89만원 모두 **루이비통**.







머린 록 우드의 램스 울 보디수트 2백30만원, 블랙 레더 벨트 40만원 모두 **미유미유**. 다채로운 필 장식 링크 브레이슬릿, 여러 줄의 체인을 결합한 볼드한 컵, 더블 C 로고 펜던트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사메**.

더블 페이스 램스 울 소재의 체크 패턴 코트, 실드, 코튼 혼방 터틀넥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골드 메탈 버클 장식 가죽 벨트 41만5천원 **미유미유**. 카프 레더 롤루(Louise) 사티 백 6만5천3백5십원 **모아나**.







슬처럼 둘러 연출 가능한 레드 컬러 더블 사이드 스카프 91만원, 울 자지 티블레 스웨터 1백23만5천원, 린 스타일의 핸드 올 미디스카트 2백78만5천원, 스트랩 디테일의 라벤더 컬러 웨지 샌들 가격 미정, 기원적적인 후프 모티브의 인피니티 이어링 93만5천원, 그린 스톤을 세팅한 인피니티 라운드 링 가격 미정 모두 **지정시**, 프린지 장식의 피카부 아이씨유(Seel) 포셋트 4백만원대 **렌다**.



시퀀 장식 티블레 맥시 드레스 9백42만5천원, 블랙 캐시미어 보디수트 1백79만원, 후프 이어링 45만5천원, 백 사이드로 늘어뜨린 스텔링 실버 네크리스 1백81만5천원 모두 **보태가 배너**.

헤어 조미연  
 메이크업 김부성  
 모델 스베틀라(Sveta)  
 에디터 이혜미

구미 02-3452-1921  
 서울 02-3490-0104  
 루이 비통 02-3432-1854  
 모나 02-596-9620  
 미우미우 02-3218-5331  
 버버리 080-700-8800  
 보태가 배너 02-3438-7882  
 생 로랑 by 인피니티 비카셀로 02-549-5741  
 샤넬 080-200-2700, chanel.com  
 셀윈스 02-549-6631  
 에르메스 02-542-6622  
 지황시 02-546-2790  
 렌다 02-514-0652  
 프리다 02-3218-5331





**Maxi Overcoat**  
정교한 테일러링과 대담한 실루엣을 결합한 맥시 코트 스타일이 부각되었다. 니 렌스부터 미드 카프 렌스에 이르는 가장림으로 오버핏을 강조하는데, 어스 컬러와 듀트럴 컬러를 주로 사용했다. 여침 부분에 가죽을 덧댄 캐시미어 코트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Short Jacket**  
슬릭한 실루엣이나 감이를 하렸던 데 맞춘 스킨 소재가 두각을 드러냈다. 보테가 베네타는 정밀하게 재단한 솔더와 정교하게 프레스한 프린트, 그리고 커프스의 트임으로 디테일을 강조했다. 신축성 있는 더블 트웰 소재로 실용성까지 놓치지 않았다. 크롭트 재킷 3백42만원 보테가 베네타, 문의 02-3438-7682

# cover me up

실루엣은 간결하나 소재는 강렬하다. 활동성과 실용성도 잊지 않았다. 남성 아우터 트렌드의 면면.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Urban Aviator**  
공군 비행사를 위해 고안된 보머 재킷은 멋스러우면서 자연스러운 매력을 추구하는 캠프트 웨어 트렌드에도 맞닿는다. 튼튼한 가죽 재킷에 부드러운 털 안감을 덧댄 보머 재킷이 자유분방한 에디투드를 강조한다. 시어링 보머 니파 레더 재킷 3백만원대 콜로 알프 로렌, 문의 02-6004-0220



**The Trench Coat**  
코트는 더블브레스트 코트와 트렌치코트로 양분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트 베이스 소재부터 광택감 있는 가죽까지 다채로운 소재를 사용하는데, 화려한 디테일은 열아네고 기분에 충실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스타일이 대세다. 양가죽 레더 트렌치 5백35만원 자방시, 문의 02-546-2790  
에디터 이주이



# Be classy

좋은 옷을 정의하는 기준은 일관된 품질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지닌다. 품질 높은 소재와 섬세한 제조 과정을 거쳐 완성한 랄프 로렌 퍼플 라벨에서는 특유의 여유와 위트를 함께 느낄 수 있다. 자연스러운 품위와 세련된 취향을 찾는 젠틀맨을 위한 이탈리아 핸드메이드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 부드러운 캐멀 헤어로 완성한 클래식 글렌 플레이드 스포츠 코트 3백60만원대, 보타지 바케타 레더로 제작해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크로스 보디 브리프케이스 2백30만원대, 록에 풍격을 더해주는 스타림 바클 스웨이드 벨트 40만원대, 핸드 스타일드 카프 소재와 라바 소재를 최자의 비율로 조합해 완성한 차머즈 카프 스킨 배니 로퍼 1백20만원대, 허우스를 상징하는 포니 로고를 다이얼 전면에 새겨 상징성을 한껏 드러낸 플로 워치, 수심 100m 방수 기능과 3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갈리버 RL200으로 구동하며, 맨 컬러 송아지 가죽 스트랩으로 클래식한 인상을 준다. 2백10만원대, 글렌 플레이드 캐시미어 타이 29만원대, 핸드 바나나드 바케타 율렛 40만원대, 문의 02-3438-6235 에디터 이주이





**White Clean**

깔끔한 모노크롬을 중심으로 정제된 실루엣이 함께 모던하게 표현된다. 구조적인 컷팅이나 접합을 통해 테일러링을 한층 더 강조하고 긴장감을 더하는 식, 벗어난 소재보다는 약간의 광택이 느껴지는 유연한 가죽 소재로 제작해 다소 딱딱한 분위기를 중화시킨다. 원소 가죽 코트 가격 미정  
에디터스 문의 02-542-6622



**Check it up**

체크 패턴을 배틀고 눈할 수 없는 겨울 패션. 어떤 체크를 고려하든 머리 각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고무하나는 오명하는 다르게 가장 변화무쌍한 패턴이기도. 일렉트릭 액션은 콘트라스트 패널로 체크 패턴을 잇는 식의 변주를 주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 스펀지 라이너드 재킷 4백7만원 **일렉트릭 액션**, 문의 02-6805-3472

**warm me up**

일상성과 활용도를 한층 강조한다. 전반적으로는 여성스럽게 표현되지만, 절제나 디테일을 첨가해 긴장감을 더하는 방식으로 제안한다. 여성 아우터 트렌드 4,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Code Cape**

풍성한 볼륨과 부드러운 실루엣의 케이프가 시선을 끈다. 편안한 스타일을 선호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연모를 놓치고 싶지 않은 여성들을 고려한 듯 보인다. 주로 고급 캐시미어나 울 소재로 제작해 우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유도한다. 캐시미어 질린 케이프 4백만원 **일렉트릭 액션**, 문의 02-546-0615



**Ruffle Treat**

남성적인 분위기가 강도는 러플 장식의 활력이 대안이다. 주로 프라시나, 브라운스톤에 사용한 디테일 코트에 작곡 활용했다. 프라시의 마르시온 외출은 유아한 마스크라 코트에서 감동할 수 있을 만큼 배려가 느껴지는 아우터이기도. 울 재킷과 코트 4백98만원 **일렉트릭 액션**, 문의 02-511-3835 **에디터스 아우터**



**편안함에 진심을 담다**

페트레이는 알프스 몽블랑의 가장 매력적인 능선 중 하나에서 따온 이름. 아우터웨어엔 도가 튼 멤버들이 2002년 설립한 이탈리아 브랜드다. 울거울 완벽한 라인과 디테일에 집중한, 실용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아우터를 만나보자.

● sponsored by PELTEREY

**'진짜'를 이야기하는 옷**

'요즘 패션은 영혼 없는 오브제, 마치 픽션 같다. 너무 빠르지만 할 뿐, 단단하지 않으며 확신도 없이 빨리 잊힌다.' 이 문장에서 시작한 브랜드가 페트레이이다. 이미 만든 옷에 사람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이 사람에게 맞춰야 하며, 매일매일 상황에 맞는 역할을 해 '쓰임 있는 옷'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이 모여 만들었다. 무엇보다 편안함과 기능성에 뿌리를 두고 디자인해 동화 같은 옷이 아니라 #realitytelling을 위한 옷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점과 지구와 하늘이 만나는 곳, 높이와 수직 공간이 물질 내에서 혼합되는 것을 표현한다. 고품질 섬유에 대한 심 없는 연구, 철저한 직물 평가와 최첨단 기술, 그리고 이탈리아의 우수한 패션 노하우를 결합해 완성한 전문적인 옷. 도시 감성을 담은 타일리스 재킷과 다운 패딩, 코트, 니트웨어, 그리고 팬츠를 중심으로 전개해왔는데 최근에는 함께 매지 할 수 있는 소품으로 아이템을 넓혀가는 중이다.

매 시즌 50가지 이상의 소재를 조합해 타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컬렉션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 울거울 현관문을 열고 추위 속으로 걸음을 내딛을, 옷을 입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한 패딩은 방수와 방풍 기능, 우수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리본타사의 나일론을 기본으로 했다. 패딩 특유의 풍성한 실루엣을 예쁘고 슬림하게 잡아주기 위해 탈착 가능한 벨트와 허리 스트링을 달아 실용적이다. 게다가 방한 목적으로 고안한 탈착 방식의 폭스, 렉스 등 다양한 퍼를 사용한 칼라 디테일, 야간 및 겨울 스포츠에 맞게 반사 띠를 사용한 안전을 위한 디테일, 수납공간을 극대화한 포켓, 내부 충전재의 통풍을 위한 공기 흡입구, 지퍼와 단추의 이중 잠금장치와 양날 지퍼 사용 등이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잡은 관전 포인트. '겨울 멋쟁이는 얼어 죽는다면 패션 공식은 페트레이 앞에선 더 이상 소용없을 듯하다.'

문의 02-3213-2366 **에디터스 장려음**

**조합, 혼합, 그리고 결합**

페트레이의 로고 속 빨간 점 3개는 몽블랑의 가장 높은

- 1 옆면 슬릿 덕분에 활동하기 편하다. 2 슬림한 라인을 연출할 수 있는 허리 스트링. 3 서로 다른 소재의 매치. 자연 모티브 암보로 디테일이 특징이다. 4-6 칼라에 다양한 퍼를 사용해 방한 기능이 탁월하다. 7 수납공간을 극대화한 내부 포켓. 8 도시에서 출퇴근 시 인기 좋은 오버사이즈 다운 재킷.





# sincerely yours

감성과 취향을 담은 품격 있는 만년필은 필기구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당신의 진심을 담은 문구를 완성해줄 만년필 5.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펜슬 박스로 사용 가능한 필 데르메스피 d'Hermès) 제노시 트라이, 고급스러운 브라운 송아지 가죽과 정원의 새들 스타일 기법이 돋보인다. 2백20만원 **에르메스**, 마카사로 우드 베를 티타늄 소재의 클래식 마카사로 만년필, 무연탄 칼라의 PVD를 코팅한 이리움 필과 18K 골드 필을 장식했다. 80만원 **그라폰 파바카스텔**,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장미에서 영감을 얻은 와인빛 베건디 컬러 미야스티 스텝)로 핏트 프레스 다재무늬 병 안크. 5만2천원 **몽블랑**, 리옹으로 도금한 18K 소금 소재 펜촉을 더해 뛰어난 필기감을 자랑하는 리얼센스 이트 앤 데이 블랙 플라티늄 만년필 1백45만원 **루이비통**, 로마의 유명 건축가 비 트루나우스의 자사에서 영감을 얻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드로잉을 새겨 넣은 비트루비안 맨 컬렉션 만년필 2백50만원 **S.T. 듀롱 파리**, 메들릭 블루 라커 보디와 컬러 23K 골드 도금 장식과 18K 골드 펜촉을 더해 클래식한 무드를 강조한 듀오폼드 프레스시지 블루 웨브본 GT 만년필 1백만원 **파카**, 생텍쥐페리 골드 코팅 남에 (어린 왕자의 장미 그림을, 바겐디 컬러 우드 컬러 발해늘의 말을 새긴 낭만적인 디자인의 미야스티스)로 핏트 프레스 솔리테어 르그랑 만년필 2백31만원 **몽블랑**, 카레 레브(Carré Révé)에서 영감을 얻은 아티스트(L'Artiste) 펜서, 프랑스 출신 작가 옥타브 마르셀(Octave Marsal), 태오 데겔초(Théo De Guetzi)가 협업해 완성한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션의 뮤지션(La Musicien) 펜서 모두 2만원 **에르메스**, 지퍼 디자인의 코냑 컬러 2구 가죽 펜 케이스 20만원 **그라폰 파바카스텔**, 스타 모티브를 음각으로 새긴 카프 스킨 컬러 르 펃트 프레스 더 클래식 노트 10만원 **몽블랑**, 에디터 **이해미**

그라폰 파바카스텔 1670-4810 에르메스 02-542-6622  
몽블랑 1670-4810 워터맨 02-554-0911  
S.T. 듀롱 파리 02-2106-3577 파카 02-554-0911

아이스크림 조식회



핑크 퍼 칼라와 나뭇 솔리브가 감각적인 울 혼방 캐시미어 코트 **만조이24 by 폴 스튜디오**, 레더 아웃 포켓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숏컷 디테일 노트, 이너로 함께 레이어드한 크림색 티블루, 편안한 동시에 멋스러운 랩 스타일의 플랩 포켓 예코 레더 스카트 모두 **에리카 카펠라니 by 폴 스튜디오**, 트렌디한 메탈 장식 원형 톱 백 **엘미 찰스 by 폴 스튜디오**.



메이드 인 이탈리아 특유의 정교한 디자인과 광택이 흐르는 고급스러운 시어링 소재의 조화가 돋보이는 노블리스 스타일의 시어링 코트 **팔링 바이 자미니 파렌체 by 폴 스튜디오**, 강렬한 레드 컬러의 비데칭 버튼업 롱 셔츠 드레스 **에리카 카펠라니 by 폴 스튜디오**, 원형의 원형 톱 장식을 더한 크로커다일 프린트 쇼가죽 토트백 **엘미 by 폴 스튜디오**.

# everyday elegance

우아함과 유니크함이 공존하는 스타일을 추구한다면, 한심과 현대백화점이 함께 만든 프리미엄 편집숍 폴 스튜디오(Fourm Studio)의 셀렉션에 주목할 것. 2020 F/W 시즌 키 아이템, 퍼 아우터를 중심으로 제안하는 다채로운 룩을 통해 올겨울 스타일링의 근사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세련된 그레이 칼라와 롱 & 린 심루엣이 돋보이는 라버셔블 스타일의 시어링 코트 **팔링 바이 자미니 파렌체 by 폴 스튜디오**, 컬러풀한 패턴을 다채롭게 믹스 매치해 포인트 아이템으로 재킷인 셔츠 셔츠 드레스 **에리카 카펠라니 by 폴 스튜디오**, 골드 메탈 클로저로 고급스러움을 배가한 최상급 악티아주 소재 원형 톱백 **비버로사 by 폴 스튜디오**.



전면에 최고급 세이벨을 더해 보온성, 활동성, 스타일을 두루 갖춘 울 혼방 캐시미어 소재 롱블레 베스트 **만조이24 by 폴 스튜디오**, 이국적인 낙화(pyrography) 프린트와 자연스러운 드레이프가 아름다운 울 솔리브 시폰 드레스 **내버라 by 폴 스튜디오**, 크로커다일 엠보싱 처리한 카프 레더 소재로 화려한 무드를 강조한 와인 컬러 토트백 **엘미 by 폴 스튜디오**, 문이 02-3449-5359 에디터 **이해미**





비워서 채워지는 곳

# 양평 □자 집과 땅집

양평의 농로를 따라 들어가다 몇 번 길을 꺾으면 야트막한 오르막에 건축가 조병수의 건축 실험작이자 세컨드 하우스인 □자 집이 나온다. 그 아래쪽으로는 또 하나의 거처인 땅집이 있다. 지극히 작고 겸소한 집이지만 건축이 품고 있는 뜻과 의지는 어느 집보다도 크고 전복적이다.

10여 년 전인가. 이 두 채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자 집은 말 그대로 지붕을 네모반듯하게 뚫은 집이다. 지붕 크기는 가로세로 5m. 웅색하지도, 그렇다고 부담스럽지도 않은 딱 좋은 크기로 바닥에는 사각 하늘과 같은 비율로 연못을 만들어놓았다. 땅집 역시 소탈하다. 땅 밑으로 3.2m를 파고 들어가 그 바닥에 집을 앉았다. '지중 하우스'인 셈이다. 그 집을 차례로 경험하면서 건축가 조병수와 인간 조병수를 동시에 봤다. 간소한 옷차림에 검은색 뽀레 안경을 쓴 건축가 조병수는 언뜻 차분하고 반듯해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전위적이고 파격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었다. 나는 그의 건축을 보며 늘 로맨틱한 면면을 실감하는데, 그 두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 집과 땅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천천히 움직이는 빛과 바람이 생생하다. 바람이 불어 집 위에 있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빛의 무리가 모양을 바꿔가며 물위로, 풀섬으로, 지붕을 떠받드는 나무 기둥으로 옮겨 다닌다.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 풍경. 잡념이 스르르 녹아내리고 풀어헤쳐져 중국에는 겸손한 마음만 남는 곳. 그렇게 많은 것들이 비워짐과 동시에 채워지는 집. 이런 곳에서 조병수 건축가는 때로 혼자 시간을 보낸다. 땅집에서는 지인들을 초대해 시 낭송회를 열기도 했다. 잔가지들 모두 처년 간결한 몸통의 시는 조병수의 건축론과 인생관 혹은 DNA와도 일맥상통한다.

## 사각 하늘을 통해 들어오는 강 같은 평화

그렇게 추억으로 남은 집에 다시 가보고 싶었던 이유는 최근 이곳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몇 달 전 인터뷰차 만난 조병수 건축가는 □자 집의 땅을 다 헐었다고 했다. 이유는 이랬다. "오랫동안 잘 보고 누렸습니다. 한번 변화를 줄 때도 됐어요." 그 모습이 궁금해 양평행을 청했고 그는 흔쾌히 오케이 사인을 주었다. 콧바람을 쐬며 차를 몰아 먼저 도착한 곳은 □자 집이었다. 초가을의 그곳에는 따뜻한 별과 서늘한 바람이 함께 있었다. 가로세로 13.4m의 정사각형 공간. 반듯하게 터를 잡고 외벽을 콘크리트로 마감한 집 주변에서는 무성한 숲과 높은 하늘만 보였다. 이곳의 대지 면적

은 877㎡(약 2백65평). 무척 큰 부지지만 건물을 올리는 데는 191.14㎡(57평)의 땅만 사용해 간결하고 단출해 보인다. 가지마다 큼직한 보라색 꽃송이를 달고 있는 산수국을 본 후 대문 안으로 들어가자 전실이 나온다. 집 안이지만 동시에 바깥이기도 한 곳. 천장에서는 빛이 한 줄 들어오고 그 아래로는 석물과 물결이 보인다. 콘크리트 벽면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군데군데 이끼가 피어나고 표면이 벗겨져 진한 회색 옷을 입은 곳도 있다. 흔히 콘크리트는 표정이 없는 무섭하고 건조한 재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처럼 색도 변하고 지나온 시간도 느껴진다. 한결같이 묵직하고 든든한 느낌도 있어 그 단단한 물성을 느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된다. 몇 발자국을 더 떼자 집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다. 고재(古材)가 지붕을 떠받드는 구조인데, 배치가 자유로워 답답한 느낌이 없다. 방이던 공간을 모두 합치거나 공간도 한층 풍성해졌다. 수정원을 채우는 물소리, 사각 하늘 위로 바스라거리는 나뭇잎 소리, 물과 나무 기둥에 반사돼 일렁이는 빛의 움직임이 더 잘 들리고 잘 보인다. 사방에서 자연도 더 깊이 들어온다. 밖에서는 무심한 콘크리트 박스로 보이지만



안에서는 한없는 평화가 흐르는 곳. 방이 있었을 때와는 또 다른 풍경과 숨결이다. 역시 저마다의 공간에는 저마다의 즐거움이 있다. 증정은 또 하나의 바깥문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그 문을 여러 빛이 길게 들어왔다. 현장에 미리 와 있던 조병수 건축 사무소의 최우석 주임이 "수정원에 물을 다 받으려면 3시간 정도 걸린다"며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받기 시작했다. 젊은 건축가는 큰 선배의 작업을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했다. "이곳에서는 시간과 날씨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알아채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입구에서 증정에 이르기까지 시퀀스도 다채로워요. 주차장 입구에서 집을 볼 때는 사각 형태의 외벽만 보여 어떤 집일까, 궁금증이 드는데 '전실을 거쳐 증정에 들어가는 구조라 그곳에서 또 한 번 기대감을 품게 되지요. 증정에 들어오면 나무 기둥의 자유로운 배치가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이 풍경이 그 자체로 자연 같아요. 현대건축물 중에는 기승전결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듯해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내비친달까요? □자 집은 달라요. 겹겹의 기운과 풍경을 천천히, 입체적으로 보여줘요." 바깥으로 난 계단을 따라 지붕 위로 올라가자 집을 둘러싼 숲이 외락, 안기듯 가볍게 다가온다. 1층을 둘러볼 때는 그래도 방을 두세 개 남겨두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곳에 올라가니 너른 옥상에 침낭을 펼쳐놓고 자도 좋을 것 같았다. 지붕도 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공간은 포도밭을 돌보며 자연을 느끼고 때로 작업도 하는 창고 같은 공간으로 계획했어요. 친구와 밤하늘의 달과 별을 같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렇게 사계절의 기운과 움직임을 차분히 느끼고 싶어 건물은 최대한 단순하고 고요하게 설계했습니다. 그 자체로 도드라지기도 감정과 기억의 조용한 '배경'이 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었어요." 조병수 건축가의 말이다.

## 건폐율 4.92%의 실험

양평 □자집에서 숲길을 따라 2분만 내려가면 조병수 건축가의 또 다른 건축 실험작인 땅집이 있다. 말 그대로 땅을 파고 집을 앉힌 지중 하우스. 이곳을 이루는 각각의 공간은 다

작다. 집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성인 1명이 간신히 지나갈 만큼 비좁고 철판으로 만든 대문도 작아 들어가려면 몸을 구부려야 한다. 방도 좁기는 마찬가지. 벌려놓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심조심 몸을 눕혀야 한다. 딱 1평 크기. 작은 창문 무욕조가 들어가 있다. 역시 작아서 무릎을 구부리고 소심하게 몸을 담가야 한다. 그렇게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 바깥 마당을 보면 빛의 기운이 쟁하고 세다. 이곳의 대지 면적은 660㎡(약 200평). 역시 넓은 편인데 건축 면적은 32.49㎡(약 9.8평)밖에 되지 않는다. 건폐율은 심지어 4.92%. 거주 공간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자연에 최대한 많은 땅을 내준 것이다. 구조도 간결하다. 집을 둘러싼 테두리의 외벽에는 노출 콘크리트를 썼지만 방이 들어선 건물의 바깥쪽은 다 집 호흡으로 마감했다. 조병수 건축가는 어찌하고 모든 곳이 다 작은 이런 집을 만들었을까. 그의 설명이 기막하다. "땅집은 하늘집이기도 합니다. 운동주의 하늘과 땅과 별을 기리고 싶어 만든 집이에요. 건축가이기 전에 한 사람, 하나의 생명체로서 자연과 세상을 가만 들여다보는 여유를 갖고 싶었어요. 운동주가 그러했듯 절제와 성찰을 통해 나와 우리를 돌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부연하자면 그는 이곳에서 겸손한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 아닐까 싶다. 평화로운 시간은 낮은 마음일 때 짓드는 법이니까. 방과 부엌의 출입구를 따로 둔 구조에서도 그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큰 집이 아니라 방과 부엌을 가까이 배치하고 출입문을 하나로 만들어도 됐겠지만, 그는 공간을 나누고 문도 따로 달았다. 방에 있다 출출하면 문을 열고 나와 뒷마루를 지나 다시 부엌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바깥 공기를 쏘고 마당이며 하늘을 한번 더 올려다볼 수 있다. 몸은 비록 불편할지언



1 완연한 가을에 찾은 □자 집. 황금수를 통과한 빛이 언뜻과 벽면에 이른다. 2 도자기와 사방은 조병수 건축가의 오랜 컬렉션 대상이다. 3 한쪽에 구비한 냉장고와 수전으로 간단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 4 측면 천문을 통해 들어오며 인내는 풍경. 건물과 동시에 병렬한 하늘과 연꽃을 마주하는 구조다. 5 세상에 가장 깊고 확실한 위안과 발산하는 역시 자연. 6, 8 지상에서 바라본 땅집 전경. □자 집처럼 극도로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 7, 10 부리 좁게 난 계단과 하리를 구부러야 들어갈 수 있는 낮은 천문. 들어서면서부터 낮은 마음을 갖게 된다. 9 두 다리들 꼭 짚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충분히 좋은 시간을 선사하는 나무 목조. 11 조병수 건축가가 언제나 주연으로 모시는 자연 이었다.

정 마음에는 겸손함이 깃들고, 머리에는 열이 차지 않는 구조다. 기본 좋게 술을 마시고 아쌍의 기운이 동하면 땅집 위에 마련한 야외 옥조에 들어갈 수도 있다. 너른 땅에 묻은 큰 콘크리트 옥조. 그 안에 몸을 담그고 보는 밤하늘과 별은 얼마나 깊고 생생할까? 이 집에서 제일 큰 곳은 마당. 가로세로 7m 크기인데 그저 빈 채로 남겨두었다. 그렇다고 휴만 있는 건 아니다. 별개미취며 산곡이며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꽃이 차례로 피고 진다. 땅 밑으로 3.2m를 파 내려간 공간에 앉아 앞쪽과 저 위의 땅을 보는 기분은 생각보다 낯설지 않다. 그저 평온하고 한가롭다. "전라도의 어느 시골을 여행하다가 밥을 먹으며 음식점에 들어갔다. 마침 사람이 많아서 음식점의 광장 같은 누추한 곳에서 밥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다 보니 묘한 느낌이 들었다. 편안하면서도 방 안에서 밖을 바라보니까 태양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이 강하게 다가왔다. 유명한 건축물도 많이 보고 유럽도 많이 돌아다녔지만, 이처럼 편안하면서도 바깥 빛의 존재가 강렬하게 다가온 경험은 없었다. 전라도의 시골 음식점 밖에서 전광석화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서 그방의 크기와 천장 높이, 조도를 유심히 보아두었다가, 땅집을 지을 때 그 느낌을 옮겨 놓았다." <조용현의 백가기행>에 나오는 그의 말이다. 두 집을 둘러보고 새삼 '건축가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품게 됐다. 모든 건축가가 인간 중심의 건물을 설계하지만 그 내용은 건축가마다 다를 것이다. 몸의 편리함에 방점을 찍는 건축가도 많을 텐데, 조병수 건축가는 인간의 몸보다 마음에 훨씬 많은 관심이 있는 듯 보인다. 몸을 조금 불편하게 해서라도 더 큰 것, 더 소중한 것을 잘 보고 느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믿는 것 같다. 그것이 건축가 조병수의 신명하고 확고한 스타일이다. 글 장영진 | 사진 김광호 | 편집 박민



# editor's Pick

속부터 채우고 탄탄하게 마무리하는 11월의 뷰티 비책!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구찌 뷰티 에몰라 드 보에 에메 퀴어르 멀티 유즈 켈클로 스테이브리에 글로 파우더를 더해 무명하고 반짝이는 피부를 연출해준다. 평소에는 인술과 볼에만 살짝 발라주어도 피부가 조금 맑고 생기 있어 보이는 기분. 인술에는 나이트 메이브 크림을 위해 덧발라도 좋을 듯하다. 4g 4만8천원. 문의 080-860-0708 *by 에디터 장미윤*

**자형시르 루즈 #37** 늘 마스크에 가려 있다 해도, 생지치 못한 순간 마스크를 살짝 내렸을 때를 생각하면 립스틱을 포기할 수 없다. 진하게 발려 마스크 안에서 묻어나, 칼라가 너무 강렬해 작정하고 바른 듯한 느낌이 딱 나는 건로. 그런 점에서 이 제품은 부드럽고 편안하게 발라주어 합작이다. 3.4g 4만8천원. 문의 080-801-9500 *by 에디터 장미윤*

**연약 백초 & 우유투 수분 진정 오버나이트 마스크** 백초와 산양초 추출물과 산뜻기의 우유투 성분이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수면 생물이 피부 진정제 도움을 준다. 수분 쉼 타임으로 생아날 필요 없이 등록 비록 후 후 푹 지고 일어나면 차분하게 진정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 튜브형이라 사용하기도 쉬워 좋다. 100ml 6만 원. 문의 1644-4430 *by 에디터 이주이*

**데코르테 리포솜 트라피 에디션** 1992년 처음 발매된 후 28년간 리뉴얼 없이 꼭 사랑받아온 데코르테 베스트셀러 에디션. 피부 타입이나 생활환경, 나이에 상관없이 단 30분 사용해도 피부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이 에디션이 브랜드 탄생 5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었다. 촉촉하고 빠르게 스며들어 다음 단계로 쉽게 넘어가도록 해주는, 바쁜 아침 효과 아이템이다. 85ml 19만5천원.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장미윤*

**겔망 아베이 로얄 리페어링 & 유스 핸드 밤** 발골 과학으로 탄생한 아베이 로얄 라인에서 선보인 핸드 밤. 옹졸처럼 잦은 손 씻기와 자극적인 손소독제 사용으로 건조하고 약해진 손에 수시로 바르기 좋다. 사이즈도 작아 가방에 쏙 40ml 8만 원. 문의 080-343-9500 *by 에디터 장미윤*

**에스트라 인텐세이빙 365 하이도로 에센스** 아미노산과 마네콜 등으로 이뤄진 30종의 에-치 콤플렉스 B.M.F™를 담아 아침 자게 선보인 제품. 피부 장벽 속 천연 보습 인자의 성분과 비율을 근접하게 구현한 성분이 피부에 베르고 깊게 수분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우유투의 에센스 포뮬라가 피부를 깊숙히 보습시켜주는 느낌이 탁월하다. 150ml 2만5천원. 문의 080-023-3900 *by 에디터 이주이*

**시슬리 워터 부드르 콤팩트 #1 로지 콤팩트** 피우더 속 필수 아미노산이 탄 건조한 계절, 피부가 매끈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자칫 주름까지 부각하는 매트한 제 품에는 손이 가지 않는다. 허니스카스 꽃 추출물을 담은 시슬리의 콤팩트 피우더는 부드럽고 크리미한 감촉이 특징으로, 피부에 닿는 즉시 가볍게 밀착되는 동시에, 벨벳처럼 부드럽고 보송하게 마무리된다. 울기름·기름 내내 사용하게 될 듯한 애감. 12g 11만 원. 문의 080-549-0216 *by 에디터 이주이*

**샤넬 수블리미지 레센스 드 땀 #BD01** 알고 촉촉하게 발리며 피부에 윤광을 더하는 세럼 피우더 에센스를 선택하는 에디션에 대한 입반은 신제품. 미끈 꽃을 오일만 담지 않은 에센스엔트 비누와 물과 물이 인텐세이빙 오일을 비롯, 12시간 동안 수분감을 유지하는 히알루론산, 식물성 글리세린을 함유해 마치 피부 표면에 부드러운 베일을 씌운 듯 촉촉한 느낌이 오래 지속된다. 40ml 19만8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by 에디터 이주이*

**샹카이 로즈 드 메이 콜리겐 밤** 오래된 흑백커피 속, 화산대에 있어 메이브 크림을 지우는 아베이의 이온다온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콜리겐 밤. 꽃잎을 연상시키는 핑크 컬러 패키지에 샹카이가 상징하는 로즈 드 메이 생분의 포뮬라를 담았다. 살짝 크림 텍스처와 더불어 향긋한 장미 향 덕분에 기분 좋은 콜리겐을 경험할 수 있었다. 메이크업 뒤에는 뒤 피부를 만져보니 보드랍고 촉촉한 느낌이 든다. 75ml 14만 원. 문의 02-517-0902 *by 에디터 이주이*

**동인비 진 앰플 인텐세이빙** 독자적인 홍삼 콜라겐과 24K 골드 피우더를 진하게 담은 앰플. 신뜻하게 흡수되어 피부를 매끄럽게 가꿔주고 즉각적인 윤광을 부여한다. 아침저녁 스킨케어 루틴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한결 쫄쫄해진 듯한 느낌이 든다. 10ml X 4 29만 원. 문의 080-710-2304 *by 에디터 이주이*

**메이브 인텐세이빙 리프트 루미나이즈 #02** 것으로 속속 바르듯만 해도 초저탄 배이스 메이브 크림 완성 알고 가벼운 텍스처가 들뜸 없이 피부에 생기와 자연스러운 윤기를 더해준다. 정화한 붓 타입의 앰플리케터 덕분에 눈 밑이나 입 주변 등 굴곡진 부분의 다크 스팟까지 확실하고 상세하게 제거된다. 2.5ml 4만2천원. 문의 080-514-8942 *by 에디터 이주이*

**라프라리 플레티늄 레이 오트-레주베이션 크림** 브랜드를 상징하는 오트-레주베이션 과학으로 탄생한 프루피엠 스킨케어 라인, 플레티늄 레이 컬렉션에서 완전히 리뉴얼된 선보이는 크림. 진자와 진화 다른 포뮬라는 적당히 리프팅 느낌으로, 캐시차이트를 피부에 부드럽게 감싼다. 건조한 대기로 가뭄이진 고함길 때문에 건조해진 차, 주얼 저체 이틀간 들뜬 비로고 수분차, 훨씬 밝고 매끈한 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50ml 가격미정. 문의 02-6390-1115 *by 에디터 이주이*

**몽블랑 레전드 오트 파퓰** 몽블랑의 새로운 레전드 EDP 향수는 차분하고 귀족적이며 남성은 남성다운 모습을 표현한다. 베르가모트와 자스민, 모스크라 시계는 상쾌한 향이 은은하게 퍼다가 바이올렛 알과 메그놀리아로 이어지는 플로럴 노트가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티드로 정화시킨? 순수함과 색다른 관능미를 엮는 차분적인 향기. 100ml 12만5천원. 문의 080-800-8809 *by 에디터 이주이*



# SHOWROOM

## BEAUTY



**라프라리 플레티늄 레이 컬렉션** 플레티늄 레이 컬렉션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크림, 세럼, 아이 세럼, 아이 크림을 출시했다. 라프라리 과학의 근간인 펠루라 콤플렉스와 새롭게 개발한 플레티늄 멀티 펩타이드로 한층 더 진보된 오트-레주베이션 과학을 적용했다. 피부 본연의 건강한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문의 02-511-6626



**샤넬 수블리미지 레스트레 드 뉼** 비싼 현대 여성의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주는 나이트 트리트먼트, 수블리미지 레스트레 드 뉼는 마치 충분한 수면을 취한 것처럼 영감을 공급해 매일 아침 편안하고 건강한 피부를 만날 수 있게 해준다. 자연 유래 성분 크로노넵티드를 함유했고, 특허 받은 2가지 발효 활성 성분을 조합했다. 문의 080-332-2700



**실크 블랙프라이데이** 출케어 뷰티 데이비스 전문 브랜드 실크 코리아가 블랙프라이데이 기념 전 품목 최대 7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세일 이벤트는 미국 최대 규모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 직구보다 저렴한 가격에 실크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다. 인텍트 시대에 출케어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단 3일간. 문의 080-246-1234



**리처드 밀 RM 27-04 투르비용** 시간의 제약은 물론, 기복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갖고 꿈을 위해 매진해온 리처드 밀과 라파엘 나달. 둘의 파트너십 10주년을 맞아 RM 27-04 투르비용 모델을 선보인다. RM 27-04는 최고의 충격 저항성을 자랑하는데도 스트랩을 포함해 총 30g밖에 되지 않는다. 꼬인 형태의 스틸 케이스를 테니스 라켓처럼 엮어 제작한 스트링 메시 기반의 칼라를 장착한 것이 그 비결이다. 문의 02-512-1311

**반클리프 아펠 켈렉션** 세계적인 공간 디자이너이자 건축가 패트릭 주앙과 산티 무가 완성한 모던한 장식이 돋보이는 <젤(Gems)> 전시회를 개최한다. 뮤지엄 컬렉션이 선보이는 5백 개가 넘는 금동, 젤스톤 및 오브제를 에블루선 갤러리에 전시하는데, 2백여 점의 반클리프 아펠 주얼리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기간은 내년 6월 14일까지. 문의 1668-1906

**블가리 알루미늄 워치** 1990년대 말 전설의 럭셔리 스포츠 워치라 불렸던 블가리의 알루미늄 워치가 귀환했다. 케이스는 더욱 견고해진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이루어졌으며 지름 40mm 사이즈,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했고 남녀 모두 즐길 수 있는 유니섹스 디자인이다. 문의 02-2056-0170



**에르메스 에이치아워 스틸 브레이슬릿** 핏 메탈 브레이슬릿을 매치한 '에이치아워(Hour H)'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이 돋보인다. 케이스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링크는 그래픽 숫자와 다이얼의 기하학적 형태를 담아 작은 사각 형태로 표현했다. 퀴츠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문의 02-542-6622

**이디르 다이아몬드 컬렉션** 신세계백화점이 영감을 받은 심미안과 기술력을 담아 선보이는 이디르는 다이아몬드 본연의 가치에 클래식한 미감과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럭셔리 파인 주얼리 브랜드. 자연과 건축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아 선보인 컬렉션부터 워딩 컬렉션까지 총 7가지 라인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제안한다. 문의 02-3479-6120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수상 50주년 기념 에디션** 스피드마스터 실버 스텝이 어워드 수상 50주년 기념 워치의 케이스는 지름 42mm이며 스틸 소재로 제작했다. 아폴로 13호 미션의 계정을 새긴 블루 나일론 패브릭 스트랩과 조화를 이룬다. 레이저 인그레이빙한 심부 다이얼의 9시 방향 서브 다이얼에서 우주복을 입은 시종사의 스니퍼를 만날 수 있다. 문의 02-511-5797



## JEWEL & WATCH

**몽블랑 M.Gram 4810 무선 스마트 헤드폰 MB01** 뛰어난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몽블랑 무선 스마트 헤드폰 MB01이 M.Gram 4810 패턴을 입었다. 1920년대에 사용하던 몽블랑의 기하학적 그래픽 디자인과 레터링에서 영감을 받은 M 패턴은 날카로운 글자 형태와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에 특징, 음향으로 기기 제어와 명령어가 능한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도 적용되었다. 문의 1670-4810

**페트레이 타칸** 이탈리아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페트레이가 F/W 시즌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나서며 대표인 여성 아이템인 타칸(TAKAN)을 선보인다. 후드 털을 탈착할 수 있어 풍성한 가벼움이 돋보이며, 허리 옆쪽 지퍼를 사용해 스리인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컬러는 블랙, 아이보리, 라이트 핑크, 카키, 총 4가지. 문의 02-3213-2366

**펜디 펜디 팩 백** 유니크한 그래픽과 컬러 팔레트로 시선을 사로잡는 유니섹스 액세서리 컬렉션인 펜디 팩(FENDI Pack) 백을 선보인다. 펜디의 패키징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으로, 2020 F/W 남성 컬렉션 런웨이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견고한 박스 형태의 우드에 부드러운 카프 레더로 고급스럽게 마감했으며, 블랙 프렌치와 'FENDI ROMA' 로고를 새겨 워트 있게 완성했다. 문의 02-514-0652

**디올 생토노레 백** 파리 생토노레 거리의 디올 부티크에서 독점 출시한 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클래식한 우아함에 기하학적이고 깔끔하게 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영원한 시그니처, 'CD'로 구현된 정교한 회전 클라스트프가 특징이다. 문의 02-3480-0104



## FASHION



UP TO **-40°C**  
FOR **49** DAYS

When **Paul-Emile Victor** was researching the ice-cold arctic region in 1936, his Longines chronometers continued to work accurately - helping him to calculate the longitude when he dared to cross the Greenland ice cap. "These watches made the difference between failure and success", Victor stated.



THE PIONEER  
SPIRIT LIVES ON.

**LONGINES**

**5** LONGINES SPIRIT  
SI BALANCE-SPRING  
MAGNETIC RESISTANT  
5-YEAR WARRANTY

론진 부티크

NEW OPENING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부산본점 대전점 · 현대백화점 판교점 · AK플라자 수원점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 현대백화점 울산점 · 롯데면세점 본점 월드타워점 코엑스점 부산점 제주점 · 신라면세점 본점 제주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강남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 · HDC신라면세점 · 현대면세점 무역센터점 동대문점

[www.longines.com/kr](http://www.longines.com/kr)